

碩士學位論文

영어의 기생공백구문에 관한 연구

-최소주의적 관점-

2005년

漢城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英語學專攻

鄭 基 丁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김용석

영어의 기생공백구문에 관한 연구

-최소주의적 관점-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Parasitic Gap Constructions in English

2004년 12월 일

漢城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英語學專攻

鄭 基 丁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김용석

영어의 기생공백구문에 관한 연구

-최소주의적 관점-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Parasitic Gap Constructions in English

위 論文을 英語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2월 일

漢城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英語學專攻

鄭 基 丁

정기정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정함.

200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감 사 의 글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저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면을 빌어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학문적인 충고와 훌륭한 지도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도교수이신 김용석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로 강의에서부터 논문지도까지 자상하게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의 세심하고 예리한 가르침은 제 논문의 부족한 면을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문귀선 교수님과 이갑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작성한 학위논문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제가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한성대학교 영문학과 학과장이신 홍성훈 교수님을 비롯한 영문학과 모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항상 정신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 12.

정 기 정 드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기생공백의 특징 및 분포	5
2.1	기생공백 구조의 특징	5
2.2	기생공백 구조의 속성	8
2.2.1	반-성분통어	9
2.2.2	교차 효과	13
2.2.3	공범주 효과	15
2.3	기생공백의 분포	16
2.3.1	주어 내재 기생공백	16
2.3.2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	18
2.3.3	보충어 내재 기생공백	19
제 3 장	기생공백 구조에 관한 기존 이론의 분석	20
3.1	비이동식 분석	21
3.2	이동식 분석	29
3.3	기존이론 분석의 문제점	47
제 4 장	최소주의 이론에 의한 분석	57
4.1	최소주의 이론의 문법체계	58
4.2	연쇄조건과 자질점검이론에 의한 기생공백 분석	69
4.2.1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	74
4.2.2	주어 내재 기생공백	81
4.2.3	보충어 내재 기생공백	83

4.3 남아있는 문제점	85
제 5 장 결 론	87
참 고 문 헌	92
ABSTRACT	96

제 1 장 서 론

인간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인간의 정신적 측면인 사고(思考)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인간만이 고도로 발달된 사고체계(systems of thought)를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법의 연구는 인간언어의 연구이며, 동시에 인간의 사고체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대 언어학자들은 인간언어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homsky는 인간의 언어능력을 타고난 생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편문법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 동일한 문법이 존재하며, 또한 이 동일체계의 문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언어들이 기술될 수 있다고 Chomsky는 믿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득적 인지체계인 보편문법이 매우 한정적인 규칙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간단한 후천적 언어경험을 통해 개별문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리와 매개변인(principles and parameters)의 체계로의 분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초기 생성문법체계 내에서 여러 학자들은 영어의 기생공백(parasitic gap)을 특이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문으로 보았지만, 최소주의 이론의 체계 내에서 이러한 기생공백이 보편문법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¹⁾.

- (1) a. Who would a picture of e surprise t
b. Which articles did you file t without reading e
c. Who did you warn t that the police would arrest e

1) 앞으로 t는 실제공백, e는 기생공백을 나타낸다.

위의 (1)예문은 전형적인 기생공백구문의 문장들이다. 즉, (1a)는 주어내재, (1b)는 부가어 내재, (1c)는 보충어 내재 기생공백이다. 이와 같은 기생공백구문의 특징은 하나의 wh-구가 2개의 공범주 자리에서 동시에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구성성분을 2개의 자리에서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는 규칙은 전통적인 변형문법의 이론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선 기생공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기생공백이란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같은 문장 내에 있는 실제공백(real gap)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공범주를 말한다.

(2) Which articles did you file e_1 without reading e_2 ?

예문 (2)에서 e_1 로 표시된 변항은 의문사 which articles가 이동한 흔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출이 허용되는 위치에 나타나는 실제공백이다. 두 번째 변항인 e_2 는 실제공백과 더불어 선행사와 동지표되는 여분의 공백으로 기생공백이라 한다. 따라서 e_1 의 존재에 의존해서만 e_2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에서처럼 e_1 를 제거하거나 (4)의 경우처럼 e_1 을 다른 대명사로 대체하면 비문이 된다.

(3) Which articles did you file $^*(e_1)$ without reading e_2

(4) * Which articles did you file them without reading e_2

따라서 e_1 은 wh-흔적인 실제공백이고, e_2 는 실제공백에 기생하는 기생공백인데, 이 두개의 공범주는 모두 선행사 which articles에 의해 비논항 결속된다. 또한 기생공백은 주어, 부가어, 보충어의 내부에 나타난다.

이러한 기생공백을 최초로 발견한 학자인 Ross (1967)는 대명사 삭제규칙(pronoun deletion rule)으로 기생공백 현상을 설명했지만, 기생공백으로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80년대 초기 원리와 매개변인이론이 대두된 이후 Taraldsen (1981), Chomsky (1982), Engdahl (1983, 1985) 등을 시작으로 Kayne (1983), Contreras (1984, 1988), Chomsky (1986b), Browning (1987a,b), Frampton (1990) 등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지배결속이론의 체계 내에서 기생공백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기생공백구문에 나타나는 의존관계를 어떠한 문법원리로 설명하는가에 따라 기생공백을 기저 생성된 공범주로 보는 비이동식 접근방식과 공운용자를 가정하여 기생공백을 이동에 따른 흔적으로 정의하는 이동식 접근방법이 있다. 그런데 Chomsky (1993, 1995)가 제안한 최소주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는 Manzini (1994), Hornstein (1995) 등이 초기 최소주의 문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기생공백구문을 분석한 정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문법의 핵인 자질점검을 토대로 하여 기생공백을 설명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82, 1986b, 1995), Engdahl (1983, 1985), Kayne (1983), Frampton (1990), Nissenbaum (2000), 등의 여러 학자들이 영어의 기생공백구문을 어떤 문법원리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기생공백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생성문법이론인 최소주의 문법의 틀 내에서 연쇄조건과 자질점검이론을 활용하여 기생공백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Chomsky (1995)의 자질점검이론을 토대로 하여 기생공백 구문의 공운용자가 지시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R]자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그 자질을 점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연쇄에 최소주의적 연쇄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생공백이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즉, [R]자질점검을 통해 wh-어구가 기생공백에게 동지표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동지표화에 의해 상호 국부결속을 이루는 실제공백의 연쇄 고리와 기생공백의 연쇄 고리들이 통합

되어 하나의 통합연쇄(unified CHAIN)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통합연쇄에 최소주의의 연쇄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생공백의 인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생공백구문이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틀 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 기생공백의 특징과 분포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기생공백에 관한 기존 분석 연구가 어떻게 보편문법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배결속이론의 틀 내에서 기생공백을 기저 생성된 대명사류로 규정하는 비이동식 관점인 Chomsky (1982), Kayne (1983) 등의 이론과 공운용자 이동으로 보는 이동식 관점인 Chomsky (1986b)의 이론과 Frampton (1990)의 이론을 연구·검토하여 분석하겠다. 제 4장에서는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문법의 기본적인 틀을 살펴본 후, 그 최소주의의 문법체계를 토대로 하여 기생공백을 [R]자질점검이론으로 설명하겠다. 또한 기생공백이 비논항 이동(A'-movement)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wh-중간흔적이 비논항 위치(A'-position)에서 기생공백을 인허한다고 주장하는 Nissenbaum (2000)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기생공백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본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 요약 및 결론을 맺기로 한다.

제 2 장 기생공백의 특징 및 분포

2.1 기생공백 구조의 특징

Engdahl (1981a)과 Chomsky (1982)가 기술한 기생공백의 특성²⁾에 의하여 아래의 예문을 보자.

(5) Which report did you file e without PRO reading e

(5)에서 첫 번째 공범주 e는 wh-이동의 결과로 나타난 변항이고, reading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공범주는 기생공백으로서 앞의 변항에 의존한다. 만일, 두 공범주의 선행어(which report)가 같다 하여 후자도 같은 wh-구의 이동에 의한 변항으로 본다면,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Lasnik (1986)은 Engdahl (1981a)과 Chomsky (1982)가 기술한 기생공백의 특성을 수정하여 기술적 일반성을 제시한다³⁾. 즉, 기생공백이 성립하려면 wh-흔적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예문을 보자.

(6) *Who did you hire t because he said e would work hard.

hire의 목적어 t는 S-구조에서 wh-이동의 흔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VP안에 있고, 기생공백은 VP밖에 있으므로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하지 않는다. (6)은 기생공백구문이 성립되는 기본적인 가설을 만족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비문법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속이론 원리 (C)와 관련이 있다. 기생공백은

2) A Parasitic Gap is licenced by a variable that does not c-command it

3) Lasnik의 기술적 일반성(Descriptive Generalization)

기생공백은 자신을 성분통어하지 않은 S-구조의 Wh-t에 의해 허용된다.(A Parasitic Gap is licenced by an S-structure Wh-t that does not c-command it)

wh-흔적은 아니지만, wh-흔적과 같은 운용자의 영역 내에 있으므로 변항이다. 그런데 변항은 지시적 표현의 일종이므로, 결속이론 원리 (C)를 만족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기생공백은 논항결속(A-binding)되지 않아야 한다⁴⁾. 따라서 (6)의 기생공백은 실제공백에 의해 논항결속되지 않으나, he에 의해 논항결속되므로 비문법적이다.

이러한 기생공백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영어의 기생공백이 S-구조에서 비논항 이동이 있는 문맥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논항 이동이란 wh-의문문, 관계절, too/enough-구문, 주제화 등으로 이동한 요소의 착지점(landing site)이 비논항 위치인 이동을 말한다. 다음 (7)은 S-구조에서 wh-이동이 있는 의문문에 기생공백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 (7) a. Which articles_i did John file t_i without reading e_i
 b. Who_i would a picture of e_i surprise t_i
 c. Who_i did you warn t_i that the police would arrest e_i

다음으로 공 운용자 이동을 포함한 관계절과 too/enough-구문을 보자. (8)와 같이 기생공백은 비논항 이동인 운용자에 의해서도 인허되며, (9)처럼 비논항 이동인 주제화(topicalization) 구문에서도 역시 기생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 (8) a. this is the kind of food [Op_i [you must cook t_i before you eat e_i]]

4) 결속이론은 세 가지 결속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Chomsky (1981: 188)는 주장하였다.

< Binding Theory >

(A)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B) 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C) An R-expression is free

결속원리 (A)가 적용되는 대용사는 독자적인 지시를 갖지 못하는 명사적 표현으로, 문장 속에서 지시적으로 의존할 선행사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재귀사, 상호사(reciprocals), 그리고 명사구 흔적 등이 속한다. 결속원리 (B)가 적용되는 대명사적 요소는 대용사와 대명사 그리고 비명사적 대명사인 pro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결속원리 (C)가 적용되는 지시표현(R-expression)은 John, Mary 등의 이름과 독자적인 지시를 갖는 the book, his mother 등의 명사구, 그리고 wh-흔적 등이 여기에 속한다.

b. this book is too interesting [_{Op} [PRO to put _{t_i} down without PRO having finished _{e_i}]]

(9) a. That_i he asserted _{t_i} without verifying _{e_i}

b. [That the ruble is worthless]_i he asserted _{t_i} without verifying _{e_i}

(9a)는 주제화된 명사구가 (9b)는 주제화된 that절이 기생공백을 인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흔히 비난항 이동이라고 알려진 중량명사구전이 (Heavy NP Shift) 구문이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기생공백을 인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 아래의 예문들을 보자.

(10) a. John offended _{t_i} by not recognizing _{e_i} immediately, [_{NP} hi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_i.

b. Susan always files _{t_i} without reading _{e_i} properly, [_{NP} all the memos from the low level administration]_i.

c. We suggest _{t_i} to our employees without actually requiring _{e_i} of them, [that they wear a tie]_i

두 번째 특징은 명사구 이동과 같은 논항 이동은 기생공백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 a. John_i was killed _{t_i} by a tree falling on *e/him.

b. Mary_i tried _{t_i} to leave without John's hearing *e/her.

5) Engdahl (1983: 12)과 Chomsky (1982: 47)는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해간 명사구가 비난항위치에 있어 t와 e를 비난항 결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Nissenbaum (2000: 545-546)도 중량명사구전이 구문에서 기생공백이 인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Postal (1994) 등은 좌측적출(Left-extraction)만이 기생공백을 허가한다고 제안하면서, 중량명사구전이와 같은 우측적출(R-extraction)이 비록 기생공백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그러한 구문에 포함되어있는 기생공백은 유사기생공백(pseudo-parasitic gap)이라고 하였다.

c. Mary_i seemed t_i to disapprove of John's talking to *e/her.

(11)은 명사구이동이 있는 문장인데, 기생공백이 논항 이동에 의해서 인허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명사인 him이나 her는 올 수 있는 반면에 기생공백인 e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S-구조가 아닌 논리형태(LF)에서 일어나는 양화사 인상(QR)이나 LF wh-이동은 기생공백을 허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12) a. What_i did you say John filed t_i without reading e_i

b. *Who_j did you say t_j filed what_i without reading e_i

c. *John filed every paper_i without reading e_i

(13) a. [What_i [Who_j did [you say t_j filed t_i without reading e_i]]]

b. [Every paper_i [John filed t_i without reading e_i]]

(12a)는 기생공백이 인허되는 문법적인 문장이지만, (12b, c)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12b, c)는 (13)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LF 이동에 의해서 기생공백이 인허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13a)는 다중 의문사구문으로 what이 흔적 t를 남기는 LF wh-이동이 있지만 그것에 의해 기생공백이 인허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3b)는 양화사 every paper가 인상하여 t를 비논항 결속하지만 비문인 것으로 보아 기생공백은 S-구조 이동에 의해 인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구조가 아닌 다른 층위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2.2 기생공백 구조의 속성

영어의 기생공백은 몇 가지 일반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성분통어하

는 실제공백에 의해서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강교차 효과는 보이는 반면 약교차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절의 주어자리에 기생공백이 나타나지 못하는 공범주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위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2.2.1 반-성분통어(anti c-command)

기생공백 구문에 반-성분통어 조건을 따른다는 주장은 Chomsky (1986b), Engdahl (1983), Safir (1987), Frampton (1990) 등의 여러 학자들이 기생공백 현상을 다룬 연구들에 나타나 있다.⁶⁾ 반-성분통어는 실제공백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Chomsky (1981: 185)는 변항을 다음 (14)와 같이 정의하고 기생공백이 S-구조에서 비논항 결속되므로 변항이라고 규정하였다.

(14) α is a variable if and only if

(i) $\alpha = [_{NP} e]$

(ii) α is in an A-position (hence bears an A-GF)

(iii) there is a β that locally $\bar{A}$ bounds α

이러한 변항은 결속이론과 관련해서 지시적 표현처럼 결속이론 원리 (C)를 따라야 한다고 Chomsky (1981)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생공백이 결속이론 원리 (C)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논항위치에 있는 실제공백인 t가 동지표를 가진 e를 성분통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동지표와 성분통어는 결속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

6) a. A parasitic gap is licensed by a variable that does not c-command it. (Chomsky, 1986b: 40)

b. A parasitic gap may not be c-commanded by the real gap. (Engdahl, 1983: 22)

c. ...there is strong evidence favoring the anti-c-command condition on the distribution of parasitic gaps (Safir, 1987:682)

d. ...the conclusion that neither the primary gap nor the parasitic gap can c-command the other (Frampton, 1990: 60)

다. 이러한 실제공백과 기생공백 간의 성분통어 관계에 대한 논의는 먼저 실제공백이 주어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포상의 제약에서 시작된다.

(15) What did you file t before reading e

(16) *Who [t met you [before you recognized e]]

(15), (16)에서 기생공백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실제공백에 의해서만 허가되고 주어자리에 있는 실제공백에 의해서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 이동이 있는 또 다른 예문들을 살펴보자.

(17) Which articles did you say t got filed by John without reading *e/them?

(18) Who did you say t was bothered by John's talking to *e/him?

(17), (18)예문 모두 역시 기생공백이 인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19b)는 실제공백이 주어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공백을 인허한다. 비문법적인 (17-18)과 (19b)의 차이는 (19b)는 주어자리에 있는 실제공백 t가 기생공백 e를 성분통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생공백의 인허여부는 실제공백의 주어, 목적어의 비대칭이 아니라 성분통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생공백은 성분통어하지 않는 실제공백에 의해서만 인허된다는 것이다.

(19) a. *a man who [t looks old [whenever I meet e]]

b. a man who [whenever I meet e][t looks old]

Chomsky (1982)의 기생공백 분석에서는 반-성분통어 조건이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기생공백의 절대적인 인허조건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Contreras (1984)는 반-성분통어 조건의 경험적인 문제점을 통해 Chomsky

(1982)식의 기생공백구문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생공백구문의 공운용자 이동을 제안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예문을 보자.

(20) a. He is a man whom everyone who meets e admires t.

b. Which article did you file t without reading e?

(20)은 지금까지 모두 실제공백인 t가 기생공백 e를 성분통어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예문들이다. 그런데 다음 (21)와 비교해 보면 (20b)의 t가 e를 성분통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a. Everybody who meets John_i admires him_i.

b. *John filed them_i without reading [Mary's articles]_i.

즉, (21b)의 비문법성은 them_i이 Mary's articles를 결속하여 결속이론 원리 (C)를 어긴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them_i이 Mary's articles를 성분통어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21b)에 비추어 볼 때 (20b)의 t는 e를 성분통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실제공백과 기생공백간의 반-성분통어 조건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20b)의 문장은 기생공백에 대한 소위 반-성분통어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20b)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또한, Chomsky (1982)의 분석에 의하면, 문법에 맞는 기생공백구문을 갖는 문장의 경우는 언제나 Koopman & Sportiche (1981)의 양함원리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Contreras (1984)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생공백을 공운용자에 비논항 결속되는 변항으로 취급하여 기생공백구문을 공운용자가 머리인 일종의 비논항 연쇄로 보아야 한다는 가정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기생공백구문을 공운용자가 머리인 비논항 연쇄구조로 본다면, 기생공백구문은 반-성분통어 조건뿐만 아니라, 양함원리와의 무관한 구조가 된다. 그러나 기생 공백구문에 대한 Contreras (1984)의 분석은 (16)과 같은 예문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성분통어 조건이 기생공백구문과 무관하다면, (16)의 예문처럼 실제 공백이 주절의 주어자리에 나타나는 경우는 실제공백이 주절의 목적어자리에 나타나는 (15)의 경우와 달리 왜 비문법적인 문장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Chomsky (1986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ontreras (1984)의 기생공백에 대한 공운용자 이동분석을 채택하면서 영-하위인접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Engdahl (1985)과 Chomsky (1986b)도 역시 반-성분통어 조건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 아래 예문을 보자.

- (22) a. Who_i did you warn t_i [that the police would arrest e_i]
 b. ?*Who_i did you warn t_i [the police would arrest e_i]

(22b)는 (22a)에 비해 덜 문법적이라고 여겨진다. (22)와 같은 구문은 보충어 CP의 위치에 대해서 학자마다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 Chomsky (1986b)는 (22a)의 보충어 CP가 일반적인 하위 범주화된 보충어가 위치하는 동사구 내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CP는 warn의 자매(sister)로서 지배되고 따라서 t는 e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나 Safir (1987)와 Browning (1987a)은 보충어 CP가 외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⁷⁾. Safir와 Brownig은 둘 다 외치의 근거를 공 보문자(empty complementizer)는 그것이 고유 지배될 경우에만 허가된다고 주장하는 Stowell (1981)의 공 보문자의 허가조건에서 찾고 있다. 즉 that은 그 Comp자리가 고유지배 될 때에만 생략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that이 생략된 (22b)가 (22a)보다 덜 문법적이다. 따라서 (22)에서 보충어 CP는 지배되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7) Safir는 S-daughter 위치에 Browning은 동사구에 부가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영어에서 S-daughter위치에 있는 요소는 고유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CP는 S-daughter위치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2)의 보충어 CP가 위치되어 t의 성분통어 영역 밖에 있다면 t는 e를 성분통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생공백구문의 허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성분통어 조건을 살펴보았다.

2.2.2. 교차 효과(crossover effect)

교차효과현상에 있어서 기생공백은 다른 wh-이동 구문과 마찬가지로 강교차 효과(strong crossover effect)⁸⁾를 나타내는 반면, 약교차 효과(weak crossover effect)는 나타내지 않는다.

(23) *Who_i did they find t_i hostile before he_i realized they wanted to help e_i?

(23)은 기생공백 e가 he와 동일지표 될 경우 e가 대명사 he에 의해 논항 결속되어 결속이론 원리 (C)를 위반하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강교차 효과를 보여주는 예문이다. Chomsky (1981)에서 강교차 효과는 결속이론 원리 (C)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변항은 결속이론과 관련해 지시적 표현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강교차 효과를 보이는 기생공백은 wh-흔적과 같은 일종의 변항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생공백이 변항이라는 것은 기생공백을 하나의 기저 생성된 공범주로 보는 비이동식 관점인 Chomsky (1982)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공운용자 이동의 흔적으로 보는 이동식 관점인 Chomsky (1986), Browning (1987)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wh-흔적과는 달리 기생공백 구문은 약교차 효과⁹⁾를 보이지 않는

8) 강교차란 이동시 이동하는 요소가 그를 성분통어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 지표화되는 요소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강교차 현상은 결속원리 (C)를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 즉, 변항t_i가 he_i에 의해서 논항결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 * who_i did he_i see t_i

9) 약교차란 그를 성분통어하지는 않지만 그와 동일지표화 되는 요소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교차의 경우는 강교차의 경우처럼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지만, 문법성이 아주 낮은 문

다¹⁰⁾. 다음 예문을 보자.

(24) a. *Who_i does his_i boss dislike t_i ?

b. *Which man_i did you say his_i boss dislikes t_i ?

(25) a. Who_i did you gossip about t_i [despite his_i teacher's having vouched for e_i] ?

b. Which man_i did you look at t_i [before his_i wife had spoken to e_i] ?

약교차 효과를 보이는 예문 (24)는 일반적인 wh-이동 구문으로 wh-흔적 t_i가 대명사 his_i와 동일지표화되어 비문이다. 약교차 효과는 강교차 효과와는 달리 대명사가 흔적을 성분통어하지 않아 결속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하나의 wh-흔적은 그것의 왼쪽에 있는 대명사와 동일지표로 묶을 수 없다는 Chomsky (1976)의 좌측조건(Leftness Condition)으로 설명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24)는 이 좌측조건을 어겨 비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25)의 기생공백은 그것의 왼쪽에 있는 대명사 his와 동일지표 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지 않은 것을 비교했을 때 문법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Koopman & Sportiche (1981)의 양합원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약교차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즉, (24)는 보문소의 위치에 나타나는 운용자 who가 두 개의 변항 his와 t를 결속하고 있어 양합원리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생공백의 속성 중의 하나인 교차 현상에 있어서 기생공백은 일반적인 wh-흔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wh-흔적이 강교차, 약교차 모두 나타내는 반면 기생공백은 강교차만 보일뿐 약교차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¹¹⁾.

장이다. 예문 (1)를 보자.

(1) *⁷who_i did his_i mother see t_i

10) Cinque (1990), Lasnik and Stowell (1991), Kennedy (1997)등의 여러 학자들이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11) 이러한 약교차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해 Lasnik and Stowell (1991)은 기생공백이 일반적인 변항과 구별되는 지시적 표현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펴기로 한다.

2.2.3 공범주 효과

마지막으로 기생공백의 또 다른 속성은 기생공백이 시제 절의 주어자리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생공백도 하나의 공범주이므로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¹²⁾로 설명된다. 다음 아래 예문들을 살펴보자.

(26) a. Which patient_i did he convince t_i (that) he should visit e_i?

b. *Which patient_i did he convince t_i (that) e_i should visit him?

(27) *I met someone who John suspected [t' [t would be successful]] though believing [e is incompetent]

기생공백이 (26a)와 같이 동사의 보충어 자리에 올 경우에는 그것이 동사에 의미역 지배되므로 고유지배되어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키지만 시제 절의 주어 자리에 올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27)를 보면 wh-흔적인 t는 t'에 의해 선행사 지배되지만 e는 고유지배자가 없어 결국 공범주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 예문(28)에서 볼 수 있듯이 공범주 원리를 지키는 예외적 격 표시(ECM)의 주어 자리에는 기생공백이 나타난다. 아래 예문 (28)에서는 동사 believe에 의해 e가 고유지배 되어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킨다.

12) 공범주 원리와 고유지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Chomsky (1986b: 17-22)는 정의하고 있다.

(1) Empty Category Principle

A nonpronominal empty category must be properly governed.

(2) α properly governs β iff α Θ -governs or antecedent-governs β

a. α Θ -governs β iff α governs β and α Θ -marks β

b. α antecedent-governs β iff α governs β and α is coindexed with β .

(28) I met someone who John expected t would be successful though
believing e to be incompetent

지금까지 기생공백에 나타나는 속성들을 살펴보았다. 기생공백은 성분통어하지 않는
실제공백에 의해서 허가되고 강교차 효과는 보이는 반면 약교차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는 속성과 시제절 부가어 제약이 있고 예외적 격 표시가 아닌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는
기생공백이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키지 못해 출현할 수 없다는 속성을 보인다.

2.3 기생공백의 분포¹³⁾

2.3.1 주어 내재 기생공백

- (29) a. *I met someone who John suspected t would be successful though
believing [e is incompetent]
b. *The man who I hired t because he said [e would work hard]

기생공백 자체가 주어인 (29)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기생공백은 문장에서 주어
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30)과 같이 복합된 형태로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것은

13) 기생공백의 문장내 분포위치에 따라 주어내재 기생공백,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 보충어내재 기
생공백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며, Engdahl (1983: 15-16)은 아래와 같이 기생공백이 부사절이나
보어절에 오는 것은 'optional'한 것으로, 주어절에 오는 것은 'obligatory'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 Optional parasitic gaps >

- (i) follow the real gap
- (ii) primarily occur in (untensed) adverbial and complement clauses
- (iii) are in almost free variation with unstressed personal pronouns, which are understood to
be coreferential to or bound by the filler.

< Obligatory parasitic gaps >

- (i) precede the real gap
- (ii) primarily occur in gerunds and noun complements
- (iii) can normally not be replaced by a coreferential pronoun without significant loss of acceptability.

허용된다. 주어 내재 기생공백의 예문을 보자.

- (30) a. Who would a picture of e surprise t
b. I like a person who close friends of e admire t
c. This is the man that the guys talking about e do not want to meet t

위의 (30)의 예들은 기생공백이 하나의 주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만약 e의 자리에서 wh-어구가 이동하였다면 복합명사구 제약(CNPC)¹⁴⁾에 의해 모두 비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생공백구문에서 복합명사구 제약은 섬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에서 보듯이 기생공백이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절에 나타나는 경우도 문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31e)의 비문법성은 섬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 (31) a. He is a man whom [_{NP} everyone [_{CP} who meets e]] admires t
b. He is a man that [_{NP} everyone [_{CP} who gives presents to e]] like t
c. This is the type of book that [_{NP} no one [_{CP} who has read e]] would give t to his mother
d. Here is the boy who [_{NP} everyone [_{CP} who has met e]] thinks t is clever
e. *He is a man whom [_{NP} everyone [_{CP} who meets the woman [_{CP} who marries e]]] admires t

14) Complex NP Constraints (Ross 1967)

No element contained in an S dominated by an NP with a lexical head noun may be moved out of that NP by a transformation.

Ross (1967)가 제안한 위의 제약은 어휘적 명사핵을 갖는 NP에 의해 관찰되는 S에 내포되는 어떠한 요소도 변형에 의해 그 NP밖으로 이동될 수 없다고 정의된다. 복합명사구 제약은 위에 기술한 관계절화 뿐만 아니라, 모든 자르기규칙(chopping Rule)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의문문변형과 화제화 변형등은 좌측이동인데, 우측이동은 상향제한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복합명사구 제약을 지킨다. 복합제약규칙은 wh-섬 조건(wh-Island Condition), 주어절 제약(Sentential Subject Condition)등과 함께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으로 통합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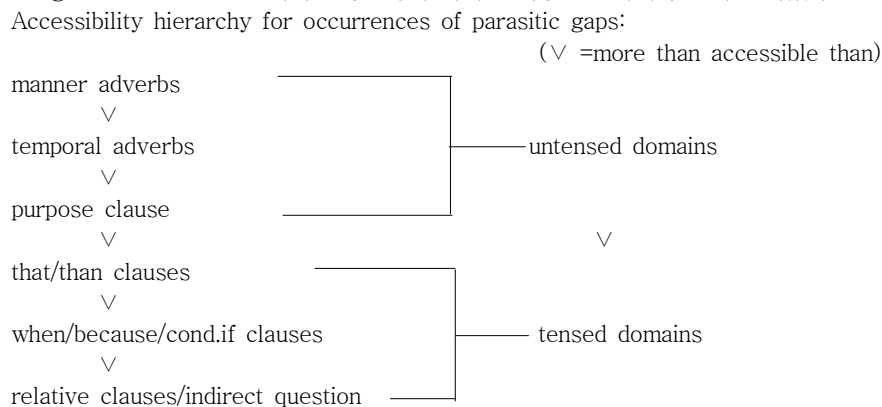
2.3.2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은 많은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생공백 구문으로서 문장의 부가어 내에 기생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wh-이동, 운용자 이동 등이 있는 구문의 부가어 내에 나타난다. 부가어 위치에 나타나는 기생공백은 부가어의 시제 유무와 부가어의 종류에 따라 용인성에 차이가 있는데, (32a)에서 (32e)로 갈수록 용인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2) a. Which articles did you [file t [without reading e]]
 b. This is the kind of food you must [cook t [before you eat e]]
 c. This is the professor that you must [say hello to t [if you run into e]]
 d. *This is the man John [interviewed t [before expecting [us to tell you
 [to give the job to e]]]]
 e. *This is the man John [interviewed t [before asking you [which job
 [to give to e]]]]

Engdahl (1983)은 이런 용인성의 차이를 계층으로 나타내었는데, 시제절보다는 비시제절에서, 그리고 부사절에 기생공백이 있는 경우에 용인성이 높아지는 것이 관찰된다¹⁵⁾. 부가어 위치에 나타나는 기생공백도 주어 위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섬

15) Engdahl (1983 : 9))은 이러한 용인성의 차이를 계층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32d)와 (32e)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ngdahl (1983)은 시제절과 비시제절이 화자들의 수용성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다른 여러 예문에서 시제절에 오는 기생공백이 훨씬 더 용인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어에 있어서는 시제와 비시제라는 영역의 차이가 기생공백의 수용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2.3.3 보충어 내재 기생공백

보충어 기생공백이란 기생공백이 동사의 보충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기생공백에 비해 그리 흔하지 않아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 (33) a. Who_i did you warn t_i [that the police would arrest e_i]
 b. Which men_i did the police warn t_i that [they were about to arrest e_i]
 c. ?*Who_i did you warn t_i [the police would arrest e_i]
 d. ?*Who_i did you convince t_i that [Tom should visit Bill before [we talk to e_i]]

(33)을 보면, 주절동사 warn과 convince의 보충어 CP절 내에 기생공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충어절인 CP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Chomsky (1986b)는 CP가 동사의 자매로서 동사구(VP)내에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Browning (1987a)은 외치되어 동사구에 부가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33)의 예문 외에도 (34)에서 볼 수 있듯이 중량명사구전이와 주제화 구문에서도 기생공백이 나타나는 것이 용인된다.

- (34) a. John offended t by not recognizing e immediately, [_{NP} hi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
 b. John, I insulted t by not recognizing e.

제 3 장 기생공백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

Ross (1967)는 기생공백을 대명사 삭제로 분석¹⁶⁾하면서, 기생공백 구문의 독특한 현상을 처음 지적하였다. 그러나 Ross의 문제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과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환경을 밝히지 못했으므로 이 규칙에 대한 기술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Taraldsen (1979)은 Ross (1967)의 대명사 삭제 규칙이 설명력이 없음을 노르웨이어를 통해서 지적하였다¹⁷⁾.

기생공백을 최초로 발견한 Ross (1967)는 대명사 삭제규칙으로 설명했지만, 본격적으로 기생공백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Taraldsen (1981), Chomsky (1982), Engdahl (1983, 1985)등을 시작으로 Kayne (1983), Contreras (1984, 1988), Chomsky (1986b), Browning (1987a,b), Frampton (1990), Manzini (1994) 등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
- 16) (1) a. The curtain which Fred tore t in rolling e up was the kind of gift of my maternal Aunt Priscilla.
 b. [?]I suspect that the contract which I wanted to peruse t before filling e away may have some loopholes.
 c. ^{??}The blintzes which Sasha is gobbling t down faster than I can reheat e are extremely tasty, if I do say so.

- (2) a. [?]The curtain which Fred tore t in rolling it up was the kind of gift of my maternal Aunt Priscilla.
 b. ^{??}I suspect that the contract which I wanted to peruse t before filling it away may have some loopholes.
 c. The blintzes which Sasha is gobbling t down faster than I can reheat them are extremely tasty, if I do say so.

Ross (1967)의 의하면, (1)의 문장들은 각각 (2)의 문장에서 대명사가 삭제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2a)는 대명사 삭제가 의무적으로, (2b)는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2c)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대명사를 삭제한 결과는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 17) (1) a. Han er en mann som alle (som) han kjenner, beundrer t
 He is a man [that [everybody (that) he knows, admires t]]
 b. *Han er en mann som alle (som) e kjenner, beundrer t
 He is a man [that [everybody (that) e knows, admires t]]

(1a)와 같이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대명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명사 삭제에 의해 생긴 공백은 그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1a)는 문법적이지만 (1b)는 비문법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Ross (1967)의 대명사 삭제 보다는 공범주 원리와 같은 보편 문법의 원리로써 설명력있게 분석할 수 있다.

3.1 비이동식 분석

비이동식 분석은 Chomsky (1982), Engdahl (1983), Kayne (1983) 등이 주로 기생공백 연구 초기에 제안했던 주장으로 기생공백을 하나의 기저 생성된 공범주로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요소의 이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D-구조에서 생성된 공범주로 본다는 것이 이들 학자들의 주장이다.

Chomsky (1982)는 먼저 기생공백의 존재에 대하여 영가설(the null hypothesis)을 주장한다. PRO나 pro와 같은 손실주어(missing subjects)가 위치는 있지만 음성적 내용을 지니지 않은 대명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생공백도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할 대명사가 음성적 내용을 잃어버리고 문장에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⁸⁾. Chomsky의 영가설을 따른다면 기생공백 구문이 존재하는 이유를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Chomsky (1982)에 의하면 영어에는 외현적 NP에 대응하여 PRO, NP-흔적, 변형의 세가지 공범주가 있다. 결속이론과 관련하여 NP의 표시에 있어서 대용사, 대명사, 지시적 표현과 같은 통사범주는 통사적인 원소가 아니므로 더 작은 단위인 [$\pm$ anaphor, $\pm$ pronominal]로 구별한다¹⁹⁾.

공범주를 결정하는 방법은 Koopman and Sportiche (1982)가 처음 제안하여 후에 기능적 결정 (functional determination)이라고 불리게 된 것으로, 공범주의 속성은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 기능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²⁰⁾. Chomsky

18) a. Which article did John file t without reading e

b. Which article did John file t without reading it

(a)에서 기생공백이 있던 자리에 (b)에서는 대명사 it을 넣어 보았을 때 완전히 문법적인 문장이 되므로 기생공백은 자신의 음성적 내용을 가지지 못해서 나타난 공범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생공백은 기저 생성된 대명사적 공범주라고 본다.

19) Chomsky (1982)에 의하면 대용사는 [+anaphor, -pronominal]로, 대명사는 [-anaphor, +pronominal]로, 지시적 표현은 [-anaphor, -pronominal]로 표시된다.

20) 공범주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Chomsky (1981)는 본질적인 결정(intrinsic determination)을 사용했다. 즉, 공범주는 어휘부에 생성될 당시에 지니는 고유 자질에 의해 그 속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NP-흔적은 지배를 받고 그 선행사는 의미역 위치에 있어서는 안되며 흔적과 선행사와의 관계는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하위인접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D-구조에서는 아직 이동을 겪지 않았으므로 NP-흔적은 고유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흔적으로 존재하지는 않

(1982)도 공범주의 종류가 결정되는 환경을 알고리즘(algorithm)으로 제시한다.

- (35) a. An EC is a variable if it is in an A-position and is locally $\bar{A}$ -bound.
b. An EC in an A-position that is not a variable is an anaphor.
c. An EC (in an A position) that is not a variable is a pronominal if it is free or locally A-bound by an antecedent with an independent θ -role.
(Chomsky 1982: 35)

Chomsky (1982)의 알고리즘 방법에 의하면 D-구조에서 하나의 공범주를 설정하였다가 도출이 완료된 후에 환경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정체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영어에 있어서 변향이 아니면 [+anaphor]의 자질을 가져서 대용어인 공범주는 [+anaphor, -pronominal]인 NP-흔적이 되고 대명사류의 흔적은 [+anaphor, +pronominal]인 PRO가 된다.

Chomsky (1982: 40)는 기생공백구문을 다음 아래와 같은 구조로 제시했다.

- (36) ... α ... t ... e ... (order irrelevant)

(36)에서 α 와 t는 일반적으로 운용소-변향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α 는 비논항 위치에 나타나고 t는 α 의 영역 내에 변향으로 단독 논항 연쇄를 형성한다. 이 경우 흔적 t는 의미역과 격을 모두 가지게 된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이동에 가해지는 제약인 하위인접 조건을 지켜야 하며 지표는 이동에 의해 주어진다.

α 와 e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e가 나타난 위치는 하위인접 조건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섬의 내부이다. 따라서 α 가 e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어지고 e는 PRO와 같이 기저에서 생성되는 공범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t가 e를 성분통어하지

는다. PRO는 지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NP가 필요하면서 지배되지 않는 위치에 PRO가 기저생성된다. 변향은 wh-이동의 결과로 생긴 흔적이며 격을 부여받는 위치에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생공백은 격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변향으로 정의된다.

않는다면 기저 생성된 공범주 e 는 α 에 의해 국부적으로 비논항 결속된다. 이때 e 는 논항위치에 있으므로 자유지표를 부여받는다.

기능적 결정을 토대로 Chomsky (1982)는 기생공백의 허가조건에 반-성분통어 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37) In the construction (A), where order is irrelevant and we assume α , t , e to be coindexed, the parasitic gap is licensed if and only if (B):

(A) ... α ... t ... e ...

(B) (i) α c-commands t and e

(ii) t does not c-command e or conversely.

(iii) α does not head the chains (α, t) and (α, e)

(iv) e is governed ($\neq$ PRO) and heads a chain with a θ -role.

(Chomsky 1982: 66)

Chomsky는 사실상 이러한 반-성분통어 조건은 경험적으로 유추된 조건이 아니라 보편문법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조건으로 보고 있다. 즉, 기생공백은 구조적으로 wh-구에 의해 국부적으로 비논항 결속되므로 기능적 차원의 정의에 따르면 변항이고, 결속이론 원리 (C)에 의하면 변항은 언제나 그의 연쇄의 머리의 성분통어 영역에서 논항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는데, 만일 기생공백이 실제공백에 의해 성분통어 되면 바로 이 결속이론 원리 (C)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기생공백 구문의 반-성분통어 조건은 독립된 문법원리가 아니라 결속이론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또한 기생공백의 g-투사가 실제공백의 g-투사에 의존해서 허가 된다고 보았던 Kayne (1983)은 실제공백의 g-투사와 기생공백의 g-투사가 어느 한 교점에서 자매관계로 만남으로써 기생공백이 실제공백의 선행사를 자신의 선행사로 취하게 되어 허가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에서 위로

(bottom-to-top) 투사해 가는 것을 g-투사라고 하는데, 정의는 다음과 같다.

(38) Definition : Y is a g-projection of X iff

- i) Y is a projection of X (in the usual sense of X' theory) or of a g-projection of X, or
- ii) X is a structural governor and Y immediately dominates W and Z, where Z is a maximal projection of a g-projection of X, and W and Z are in a canonical government configuration.

또한 g-투사의 정의에서 활용되고 있는 규범지배 배열(canonical government configuration)의 정의는 아래 (39)와 같다. 영어는 핵이 앞에 나타나는 언어이므로 (39)의 두 가지 기본구조 중에서 $[_Y WZ]$ 유형인 (39i)에 속한다.

(39) The definition of canonical government configuration:

W and Z (Z a maximal projection, and W and Z immediately dominated by some Y) are in a canonical government configuration i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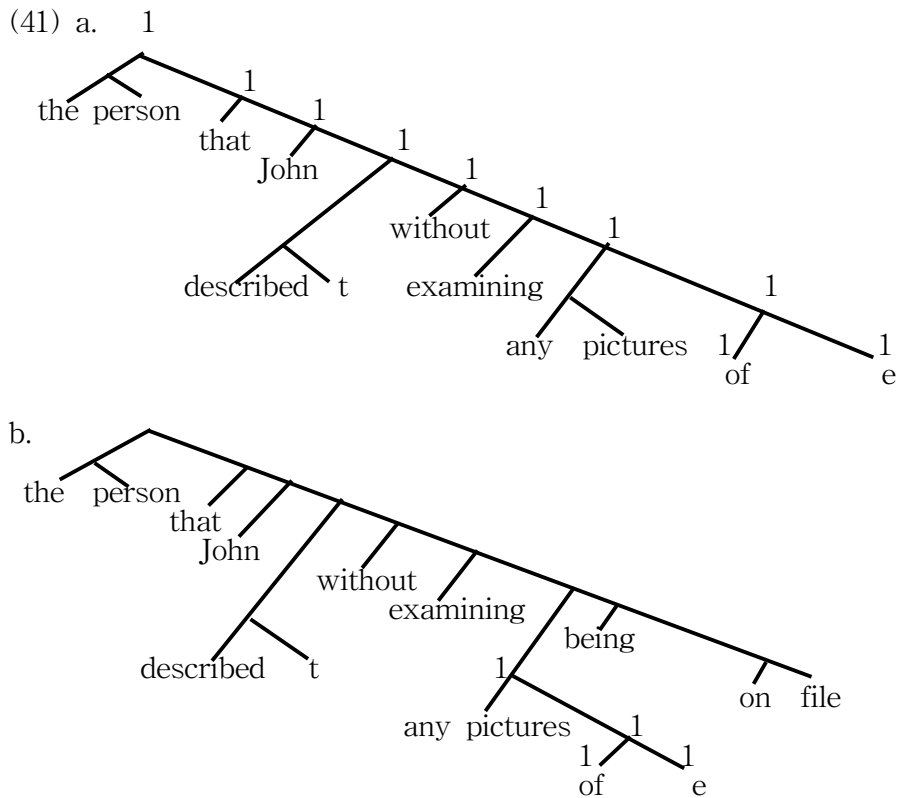
- i) V governs NP to its right in the grammar of the language in question and W precedes Z, or
- ii) V governs NP to its left in the grammar of the language in question and Z precedes W.

(Kayne 1983: 225)

(39i)구조에서 순서상 W 뒤에 나타나는 Z는 최대투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W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g-투사는 X라는 지배자가 있고, 그것의 최대투사 Z가 $[_Y WZ]$ 라는 기본구조를 이루지 못할 때까지 즉, g-투사가 절의 주어로서 왼쪽가지가 될 때까지 수형도를 따라 계

속해서 투사되어 올라간다. 결국 공범주는 왼쪽가지를 구성하는 자신의 지배자의 최대 g-투사 내에서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40) a. ?The person that John described t without examining any pictures of e
 b. *The person that John described t without any pictures of e being on file



예문 (40a)의 구조를 나타낸 (41a)에서 e는 전치사 of, 즉 X에 의해 지배되고, X의 최대투사 PP는 X의 g-투사가 된다. 이것은 오른쪽 가지로서 any pictures와 자매관계가 되어 [Y WZ]라는 기본지배구조를 형성하고 Y에 해당하는 NP는 X의 g-투사가 된다. 이 NP 또한 동사 examine과 자매관계에 있는 오른쪽 가지로서 기본지배구조를 이루어 이 둘을 직접 관할하는 VP는 X의 또 다른 g-투사가 된다. 이것은 PRO와 자매관계를 이루고 이

둘을 직접 관할하는 IP가 X의 g-투사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X의 g-투사는 계속해서 오른쪽 가지를 따라 올라가게 되어 마침내 선행사를 직접 관할하는 꼭대기 절점까지 g-투사는 확장된다. 결국 기생공백 e는 자신을 지배하는 전치사 P의 g-투사 내에 성분 통어하는 선행사를 가지게 되어 공범주 원리를 만족하게 된다. 반면에 (40b)는 (41b)의 구조를 갖는데, 여기서 e는 of에 의해 지배되고, 이것의 최대투사인 PP는 P의 g-투사가 된다. 지배자 X의 최대투사 PP는 오른쪽 가지로서 Z가 되어 W에 해당하는 any pictures와 기본구조를 이루고 이 둘을 직접 관할하는 NP는 X의 g-투사가 된다. 이 NP는 왼쪽가지이므로 더 이상 g-투사는 확장되지 못하고 NP 절점에서 g-투사는 끝나게 된다. 구조 지배자인 전치사 P의 어떤 g-투사도 이것에 의해 지배되는 기생공백 e의 선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문장은 비문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Kayne의 공범주 원리가 연결성 조건으로 일반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 (42) a. ?a person who [close friends of e] admire t
 b. *a person who you admire t because [close friends of e] become famous

(42a)와 (42b)에 나타난 e는 둘 다 전치사 of에 의해 지배되는 공범주이고 이들은 of의 최대 g-투사인 주어 NP [_{NP} close friends of e] 안에서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g-투사 개념의 공범주 원리에 의하면 두 문장 모두 비문법적이어야 하는데 (42a)는 용인되는 문장이고 (42b)는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한다.

(42a)에서는 e의 최대 g-투사인 주어 NP가 또 다른 공범주 t의 g-투사인 VP와 자매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42b)에서는 왼쪽가지를 이루고 있는 주어 NP가 t의 어떤 g-투사와도 자매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 지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42a)에서는 두 공범주에 대한 각각의 지배자의 g-투

사가 어떤 한 교점에서 만나 자매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두 개의 공범주가 같은 선행사에 의해 국부적으로 결속되어서 허가 받아야 한다는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Kayne (1983)은 이러한 조건을 연결성 조건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형식화 하였다.

(43) Definition for the g -projection set G_β of a category β , where γ governs β :

- a. $\forall \pi, \quad \pi = \text{a } g\text{-projection of } \gamma \rightarrow \pi \in G_\beta$
- b. $\beta \in G_\beta$ and
- b'. δ dominates β and δ does not dominate $\gamma \rightarrow \delta \in G_\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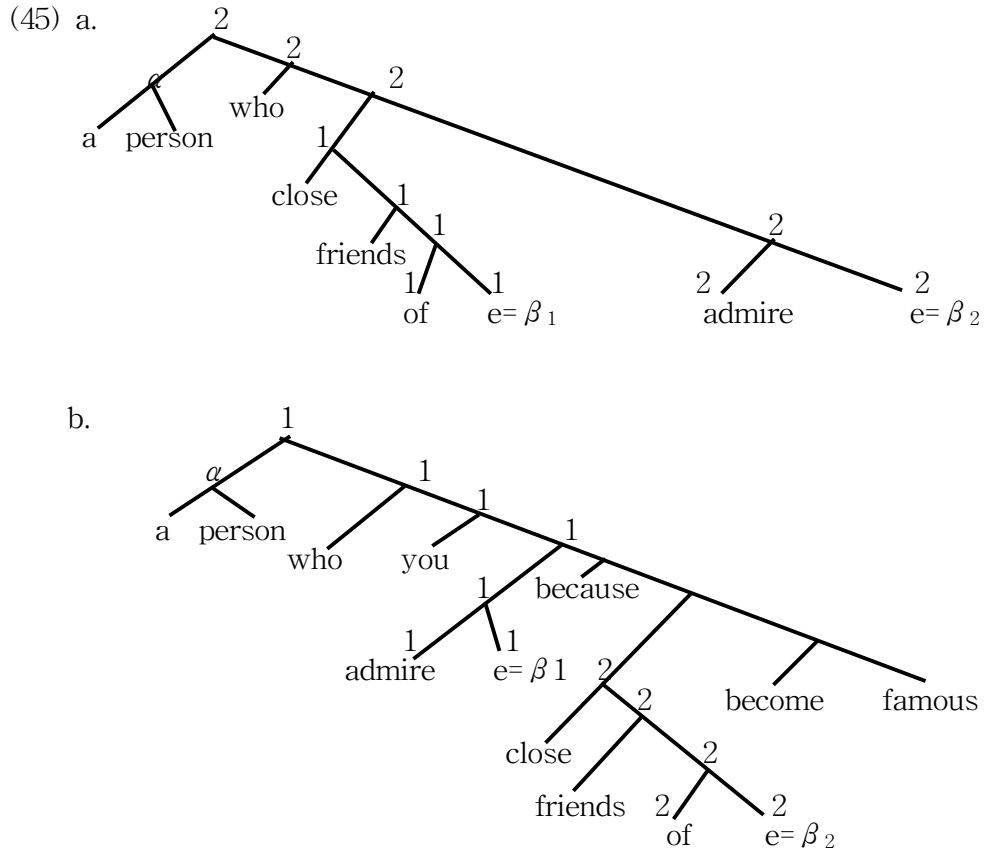
(Kayne 1983: 229)

(44) Let $\beta_1 \dots \beta_j, \beta_{j+1} \dots \beta_n$ be a maximal set of empty categories in a tree T such that $\exists \alpha, \forall j, \beta_j$ is locally bound by α .

Then $\{\alpha\} \cup (\bigcup_{1 \leq j \leq n} G_{\beta_j})$ must constitute a subtree of T .

(Kayne 1983: 234)

γ 라는 요소가 β 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공범주 β 의 g -투사 집합인 G_β 는 γ 라는 구조지배자의 g -투사와 β 자신과 β 를 관할하면서 그것의 지배자인 γ 를 관할하지 않은 δ 를 모두 요소로 가진다. (44)에 정의된 연결성 조건은 선행사 α 가 있고 모든 j 에 대해 공범주 β_j 가 이 선행사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결속되는 수형도 안에 있을 때, 이 T 안에서 $\beta_1 \dots \beta_j, \beta_{j+1} \dots \beta_n$ 이 공범주들의 최대 집합을 이룬다면 선행사 α 와 모든 공범주 β_j 의 g -투사가 합쳐져서 수형도 T 의 하위 수형도를 구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위 (42)예문의 수형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45a)는 공범주 β_1 과 β_2 를 각각 국부적으로 성분통어하는 선행사 α 가 있고, α 가 있는 수형도 T안에서 α 와 1이라고 표시된 β_1 의 g-투사 집합, 그리고 2라고 표시된 β_2 의 g-투사집합이 합쳐져서 하나의 하위 수형도를 이루고 있어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반면에 (45b)는 수형도 T안에서 선행사 α 는 β_1 과 β_2 두 공범주를 모두 국부적으로 결속하고 있으나 선행사 α 와 β_1 의 g-투사집합과 β_2 의 g-투사집합이 합쳐져서 하위 수형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지금까지 어떠한 요소의 이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D-구조에서 생성된 공범주로 보는 입장인 비이동식 관점에서 Chomsky (1982)와 Kayne (1983)이 기생공백을 하나의 기저 생성된 공범주로 분석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3.2 이동식 분석

Engdahl (1983), Chomsky (1982), Kayne (1983) 등은 기생공백을 기저 생성된 공범주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Chomsky (1986)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기생공백을 공운용자가 이동함으로써 생긴 변항이라고 보았다²¹⁾.

앞 장에서도 보았듯이 기생공백의 한 가지 기본적인 특질은 목적어 위치에 있는 wh-흔적에 의해서 기생공백자격이 인허되나, 주어위치에서는 인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주어의 위치가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²⁾. 그러나 주어도 그것이 성분통어하지 않은 기생공백을 인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어가 보다 깊숙이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어는 규칙적으로 기생공백을 인허할 수 있다²³⁾. 따라서 기생공백의 주어인허의 배제는 반-성분통어와 관련 있다. 이러한 구조들의 또 다른 특질은 기생공백이 모든 전형적인 섬 효과의 현상들을 갖는 문장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장들의 비교적인 수용가능성의 특징들은 wh-이동을 갖는 문장들의 특징들과 같다. 즉, 기생공백은 공운용자이동과 관련 있다.

기생공백 구문 내에 공운용자의 이동이 있다는 증거는 기생공백의 섬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²⁴⁾. 왜냐하면 섬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섬 제약조건

21) 기생공백이 실제공백의 운용자가 아닌 다른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된다는 주장은 Contreras (1984)에서 시작되어 Bennis and Hoekstra (1985), Chomsky (1986a, b), Jones (1987) 그리고 Browning (1987a, b)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22) a. what did you file t [before you read e]
b. *who [t met you [before you recognized e]]

23) a. *a man who [t looks old [whenever I meet e]]
b. a man who [whenever I meet e] [t looks old]

24) 이것은 Chomsky (1986b: 55-56)가 제시한 아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다.
(1) This is the man John interviewed t before _____
(2) a. expecting us to tell you to give the job to e
b. expecting us ask you which job to give to e
c. asking you which job to give to e

인 하위인접조건에 민감하다는 것의 표현이고 이동에 대한 제약인 하위인접조건에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그 구문 내에 이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운용자의 이동이 있다는 또다른 증거는 (46a-c)의 기생공백 구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 (46) a. Who did you tell t [that you would visit e]
 b. [?]*Who did you ask t [why you should visit e]
 c. [?]*Who did you ask t [how you should address e]

(46)의 문장에 공운용자 이동을 가정하여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47) a. Who_i did you tell t_i [CP Op_j [C' that [IP you would visit e_j]]]
 b. [?]*Who_i did you ask t_i [CP why [C' [IP you should visit e]]]
 c. [?]*Who_i did you ask t_i [CP how [C' [IP you should address e]]]

(47b,c)의 문법성이 (47a)에 비해 떨어지는데 그것은 (47b,c)의 CP의 지정어 자리가 다른 wh-구로 채워져 있어 공운용자의 이동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생공백 구문에 나타난 섬 제약효과가 바로 그 구문 속에 공운용자 이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Chomsky (1986b)는 이러한 기생공백의 인허에만 적용되는 연쇄합성을 제안하여 기생공백과 그것의 운용자가 이룬 연쇄는 실제공백의 연쇄와는

-
- d. wondering who to ask which job to give to e
 e. telling you that you should give the job to e
 f. reading the book you give to e
 g. hearing about the plan you proposed to e
 h. announcing the plan to speak to e
 i. hearing about the plan to speak to e
 j. expecting you to leave without meeting e
 k. meeting the man in the office near e

기생공백이 포함된 (2a-k)가 (1)의 부가어 before 뒤에 왔을 때 일반적인 wh-이동에서 섬 역할을 하는 wh-섬, 복합명사구제약, 부가어 섬 등이 역시 섬효과를 나타낸다.

별도의 연쇄를 이루지만 실제공백의 연쇄와의 합성을 통해서만 기생연쇄 (parasitic chain)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48) If $\delta = (\alpha_1, \dots, \alpha_n)$ is the chain of the real gap and $\delta' = (\beta_1, \dots, \beta_m)$ is the chain of the parasitic gap, then the "composed chain"
 $(\delta, \delta') = (\alpha_1, \dots, \alpha_n, \beta_1, \dots, \beta_m)$ is the chain associated with the parasitic gap construction and yields its interpretation.

(Chomsky 1986b: 56)

위의 연쇄합성에서 실제공백의 연쇄인 δ 와 기생공백의 연쇄 δ' 가 합성한 하나의 합성연쇄 (δ, δ') 에 의해 기생공백 구문이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연쇄가 하나의 연쇄를 이루는 이러한 연쇄합성과정에는 제약조건이 따르며 이러한 조건이 곧 기생공백구문의 허가조건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연쇄합성을 통해서만 기생공백구문이 해석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Chomsky는 연쇄합성의 조건으로 반-성분통어 조건과 영-하위 인접조건을 제안하였다.

실제공백과 기생공백 간에 반-성분통어조건과 연쇄합성의 허가조건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결속이론 원리 (C)가 합성된 연쇄 $(\delta, \delta') = (\alpha_1, \dots, \alpha_n, \beta_1, \dots, \beta_m)$ 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β_m 인 기생공백이 합성된 연쇄의 머리어인 α_1 의 영역 내에서 논항결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α_n 인 실제공백에 의해서 성분통어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당연히 따르게 된다. 또한 연쇄조건 (Chain Condition)이 합성된 연쇄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반-성분통어가 연쇄합성의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 연쇄조건을 살펴보자.

- (49) A maximal A-chain $(\alpha_1, \dots, \alpha_n)$ has exactly one Case-marked position (namely, α_1) and exactly one θ -marked position (namely, α_n)

논항연쇄는 하나의 격 표시되는 자리와 하나의 의미역 표시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연쇄조건이 성분통어를 만족하는 어떠한 연쇄 $(\alpha_1, \dots, \alpha_n)$ 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합성된 연쇄의 하위연쇄(subchain)이든 합성되지 않은 연쇄이든 연쇄에 포함되어있는 고리가 성분통어를 만족하기만 하면 모두 이 연쇄조건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서 보면 합성된 연쇄 $(\delta, \delta') = (\alpha_1, \dots, \alpha_n, \beta_1, \dots, \beta_m)$ 에서 실제공백 α_n 이 기생공백 β_m 을 성분통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실제공백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하면 실제공백이 머리고 기생공백이 꼬리인 논항연쇄(A-chain)을 이루게 되고 그 논항연쇄는 연쇄조건을 어기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공백과 기생공백이 이루는 그 논항연쇄에는 머리와 꼬리가 모두 격과 의미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면에서 기생공백의 일반적인 허가조건인 반-성분통어 조건이 또한 연쇄합성의 허가 조건이 된다. 그러나 Chomsky는 반 성분통어로 설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연쇄합성의 조건으로 영-하위인접 조건을 만족해야한다고 설명한다. 다음 (50)를 보자.

(50) 영-하위인접조건(0-subjacency condition)

The operator of the parasitic gap must be 0-subjacent to the head of the A-chain of the real gap.

이러한 영-하위인접²⁵⁾을 제안한 동기는 기생공백의 운용자와 실제공백 간의 거리가 최대한 가까워야 연쇄합성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1-하위인접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생공백구문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먼저 다음 예문 (51a, b)의 문법성의 차이는 일반

25) 여기서 말하는 영 하위인접은 두 요소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하나의 장벽은 허용하는 일반적인 하위인접과는 다르다.

적인 의미의 하위인접 조건인 1-하위인접으로도 포착이 된다.

(51) a. What did you file t [_{PP} before [_{CP} Op [you read e]]]

b. *Who [t [_{VP} spoke to you [_{PP} before [_{CP} Op [you met e]]]]]

먼저 (51a)에서 각각의 chain δ =(what, t)과 δ' =(Op, e)에서 Op와 t 사이에 단지 하나의 장벽인 PP만이 있기 때문에 Op는 t에 하위인접한다. 여기서 CP는 P에 의해 L-표시(marked)되어 차단 범주(blocking category)가 되지 않아 장벽이 아니다. 그러나 (51b)에서는 두 개의 장벽 즉 PP와 VP가 있어 하위인접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의 장벽만이 존재하는데도 비문인 경우가 있다.

(52) *Who t [_{VP} warned the men [_{CP} that they were about to arrest e]]

이 예문에서 Op와 t 사이에는 단 하나의 장벽, VP만이 존재한다. CP는 L-표시되어 차단범주가 되지 않고 따라서 장벽이 아니다. 단 하나의 장벽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하위인접 조건인 1-하위인접 조건은 만족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비문이다. 따라서 연쇄합성에 영-하위인접 조건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연쇄합성 (δ, δ')에서 δ 와 δ' 각각의 고리는 일반적인 이동제약조건인 1-하위인접조건을 지켜야 하지만 두 연쇄 간에는 영-하위인접 조건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새로 도입한 영-하위인접 조건으로 기생공백의 공운용자와 실제 공백 사이에 하나의 장벽이 있는 (52)의 비문법성은 바로 설명이 되는 반면 1-하위인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51a)가 문제가 된다.

(51) a. What did you file t [_{PP} before [Op [you read e]]]

위에서 보았듯이 Op는 t로부터 장벽인 PP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 영-하위인접하지 않은데도 정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Chomsky는 Op가 PP에 부가된다고 하는 PP부가를 제안한다.

(53) What did you file t [PP Op [PP before [Op [you read e]]]]

이렇게 부가된 구조에서는 PP가 장벽이 되지 않아 Op는 t에 영-하위인접한다. 그리고 이러한 PP부가는 명사구에만 한정된다. 다음 (54a-b)의 문법성의 차이를 보자.

- (54) a. *he is the person to whom [they left [before speaking t]]
 b. he is the person who [they left [before speaking to t]]

(54a)에서 to whom이 이동할 때 부가어 before-절에 부가하면 어떠한 장벽도 건너지 않게 된다. 이것은 (54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54b)는 수용할 수 있는 반면 (54a)는 수용할 수 없다. 이 차이는 바로 (54b)의 명사구만이 PP에 부가될 수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또한, Chomsky (1986b)는 만약 기생공백구문의 부가어(adjunct) 위치를 다음 (55)처럼 부착구조(Adjunction structure)로 설정한다면, 기생공백에 대한 Contreras (1984)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공운용자의 전치사구 부착을 허용하는 영-하위인접조건에 의존함 없이 여전히 Engdahl (1981)과 Chomsky (1982)등에서 제안한 반-성분통어조건에 입각해 기생공백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5) Op [NP [vpt....][Ajunct....e...]]

즉, 이 구조에서 e는 동사구의 하위분절(segment)인 VP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t는 e를 강하게 성분통어(strongly c-command)하지 못하나 그래도 e가 동사구의 상위분절인 VP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하게 성분통어(weakly c-command)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하에서 결속이론에는 약-성분통어의 개념이 적용되고, 기생공백구문의 자격조건에는 강-성분통어개념이 적용된다면, 다음 (56a)은 결속원리 (C)의 위반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에도 불구하고, (57)의 기생공백구문의 경우는 여전히 반-성분통어 조건에 의해 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설명할 수 있다.

(56) a. *John filed them_i without reading Mary's articles_i

b. John filed the articles about them_i without meeting those students_i

(57) which articles_i did John file t_i without reading e_i

공운용자 이동을 주장한 Chomsky (1986b)의 이론을 수정하면서, Frampton (1990)은 wh-이동에서 최대투사들의 부착(adjunction)에 관한 제약들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기생공백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투사들의 부착에 관한 제약들은 IP에 부착을 허용함으로서 완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착에 대한 허가조건으로서 규범 핵 지배조건(canonical head government condition)을 설정함으로서 더욱 엄격하게 제약을 만들었다. 이는 기생공백 현상의 향상된 설명과 that-흔적 효과(that-trace effect)의 간결화 된 설명을 제시한다. 영어에서 전형적인 주어 섬 위반과 그러한 문장과 유사한 구문인 아래 관계절 구조 예문(58b)를 (59)처럼 나타낸다²⁶⁾.

26) the symbol IP :t to indicate the maximal projection IP with the trace t adjoined to it
→ [IP:t] is therefore equivalent to the standard [IP t [IP]]

(58) a. * Alex, who [friends of t] admire Bill, . . .

b. Alex, who [friends of t] admire t, . . .

(59) [_{CP} who Comp [_{IP:t_{1j}} [_{NP} friends of t_{2j}] Infl [_{VP:t_{3j}} admire t_{4j}]]]

Primary chain: (who_j, t_{1j}, t_{3j}, t_{4j})

Parasitic chain: (who_j, t_{1j}, t_{2j})

먼저, 같은 운용자를 머리(head)로 하는 두 개의 wh-연쇄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연쇄는 국부결속을 만족한다. t_{1j}는 t_{2j}와 t_{3j}를 국부적으로 결속한다. 둘째, IP에 부착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VP속에 있는 일차연쇄(primary chain)와 주어 NP속에 있는 기생연쇄사이의 연결 장소가 된다. 셋째, 기생연쇄는 1-하위인접을 만족한다. 왜냐하면 t_{1j}와 t_{2j}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인 주어 NP가 있기 때문이다. (58a)는 비문법적인 문장인데, (60)처럼 나타낼 수 있다.

(60) [_{CP} who Comp [_{IP:t_{1j}} [_{NP} friends of t_{2j}] Infl [_{VP:t_{3j}} admire Bill]]]

(60)의 비문법성과 (59)의 문법성을 설명해보면, 최대투사의 wh-요소의 부착이 최대투사의 핵에 의해 규범적으로 지배되는 위치에서만 발생한다. (59)에서 t_{3j}은 IP의 핵인 Infl에 의해 규범적으로 지배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IP의 부착이 허가 된다. 하지만 (60)에서 Infl은 t_{2j}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둘 사이를 방해하는(intervening) NP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IP의 부착에 관한 인허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Frampton (1990)은 Chomsky (1986b)의 개념들을 이용하면서, 구별되는 IP의 3가지 속성들²⁷⁾중 IP1 하나만을 사용한다²⁸⁾. 다시 말해 Frampton (1990)은 자

27) Three distinct special properties of IP (Frampton 1990: 51)

< IP1 >

with respect to its own status, IP always behaves as if it were L-marked, even when it is the sister of a nonovert Comp. IP is therefore never a barrier except when barrierhood is inherited from a lower maximal projection. But with respect to its own ability to induce barrierhood of higher maximal projections, IP behaves as if it were not L-marked. That is, higher maximal

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들²⁹⁾을 제안하면서, Chomsky (1986)의 IP₂와 IP₃의 개념을 없애고, IP₁의 개념만을 사용한다. Frampton (1990)은 IP의 부착은 가능하지만, NP, PP, CP는 전형적으로 논항들을 나타내는 범주들이기 때문에 이 범주들의 부착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부착을 한층 더 제한하기 위해 HGCA의 조건을 제시한다.

(61) *Head Government Condition on Adjunction* (HGCA)

A wh-element can only be adjoined to a maximal projection XP from a position that is canonically governed by the head of XP.

HGCA조건³⁰⁾은 주로 기생공백연쇄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projections always inherit barrierhood from IP. This property is characteristic of maximal projections that are themselves barriers.

< IP₂ >

Adjunction to IP is excluded, even though adjunction to most other nonarguments is permitted.

< IP₃ >

Infl does not induce minimality effects. In general, a head X₀ can prevent an element α from governing an element β if X₀ is a more local governor of β than α is. It is assumed that Infl does not have this property.

28) Chomsky(1986)는 영어에서 wh-섬을 설명하기 위해 IP₂를 가정하고, 하나의 장벽이 위반(violation)을 만든다는 하위인접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고 했다. IP₂를 가정하며 wh-섬에서의 적출을 위한 적절한 배열(configuration)은 (1)과 같다.

(1) [_{VP:tj} V [_{CP} wh-Op [_{C'} Comp [_{IP} NP [_{I'} Infl [_{VP:tj} . . .

오직 하나의 장벽만이 두 개의 흔적을 갈라놓는다. IP는 장벽이 아니며, CP는 어휘표시(L-marked)되지만, IP로부터 장벽성(barrierhood)을 물려받는다. IP의 부착이 허용되면, 상위 VP에 부가된 흔적(higher VP-adjoined trace)과 하위 IP에 부가된 흔적(lower IP-adjoined trace)을 갈라놓는 장벽이 없고, 하위인접을 위반하지 않는다. Frampton (1990)은 IP의 부착을 허용해서 wh-섬에서의 적출은 어떠한 장벽을 건넌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영-하위인접조건이 wh-섬을 설명하는데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다른 구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벽을 건넌 것은 하위인접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9) Frampton (1990: 52)은 separate의 개념과 subjacent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 will say that X *separates* Y₁ from Y₂ if X includes Y₂ and excludes Y₁. I will say that X is *subjacent* to Y if there is at most a single barrier that separates Y and X.

30) HGCA의 조건으로, 두 가지 직접적인 결과가 나온다.

첫째, 영어에서 wh-이동은 Infl이 주어를 규범적으로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IP의 주어를 IP에 부가할 수 없다. 이는 that-흔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결과가 된다. Infl이 t₂를 규범적으로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t₁이 t₂를 g-연결하지(g-related) 못한다.

Frampton (1990)이 추구하는 것은 일차공백과 기생공백을 같은 운용자에 의해 결속되는 것을 허용하는 연쇄형성(chain formation)이다.

Frampton (1990)은 연쇄는 이동의 직접적인 흔적이 아니며, 연쇄형성은 하나의 구별되는 과정이라는 Rizzi (1986)의 wh-연쇄 형성을 받아들인다. 꼬리(tail)를 제외한 각각 연쇄 요소는 연쇄 속에서 그것의 후임자(successor)와 국부적으로 결속해야만 한다는 조건하에서 연쇄들은 S-구조에서 형성된다. 연쇄의 각각의 구성원들은 그것의 선행자(predecessor)와 하위 인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표화된 흔적은 D-구조에서부터 S-구조의 파생으로 α -이동의 적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때, 연쇄형성은 S-구조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지표화된 흔적들은 연쇄 속으로 모이게 된다.

α -이동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으로 먼저, 요소는 그것의 목표위치로 복사가 되고, 두개의 요소들이 동일지표 된다. 그런 다음, 그 출처(the source)는 그것의 자리에서 지표화된 흔적을 남기면서 삭제된다. 그러나 복사나 흔적 형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 ... [IP:t_i] t_{2j} [I' Infl [VP ...

둘째, 다양한 섬 사실현상들(island facts)을 설명한다. 주어 섬구문을 보면, NP가 Spec (IP) 안에 있다고 가정한다. (1)에서 NP 속에서 IP에 부가된(IP-adjoined) 위치로 wh-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동은 최소한 Spec (CP)위치로 가야만 하는데, 이는 하위인접 위반을 만든다. 왜냐하면, 어휘표시가 안된 NP와 NP로부터 장벽을 물려받은 IP를 건너야하기 때문이다. 아래 부가어 절 (2)에서의 적출(extraction)을 살펴보자.

(2) *Jack, who we talked to Bill [PP because we like t] ...

PP는 어휘표시 안되고, IP 아니면 VP속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PP의 부착은 배제된다. 그리고, 주절 굴절소(matrix Infl)도 V도 PP속으로 지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휘표시가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출연쇄(extraction chain)는 IP나 VP속에 부착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동은 PP속에 포함된 위치에서 직접 Spec (CP)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최소한 두 개의 장벽들을 건너야 한다. 즉, 부가어 절 그 자체와 IP이다. 만약에 부가어가 VP속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장벽을 하나 더 건너야 한다. 따라서 하위인접 위반은 둘 다의 경우에서 일어난다. 부가어 절에서의 적출과 반대로, 부가어 그 자체의 적출은 Infl이나 V가 부가어를 규범적으로 지배한다면 IP의 부착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HGCA조건을 만족하기위해서 보충어 CP에서의 적출은 그 보충어의 Spec CP위치를 지배하는 주절 동사에 달려있다. 비분지 동사(nonbridge verbs)의 분석은 그것들의 보충어는 V에 의해 핵 지배는 되지만, 어휘표시는 안 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부가어 섬처럼 행동한다.

다. 일반적으로 흔적이 형성이 된다면, 삭제의 복원성³¹⁾은 복사가 먼저 적용되어서 흔적이 연쇄형성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생연쇄는 비록 먼저 복사하지 않고 흔적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복원성이 가능한 불규칙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그 흔적의 내용은 또다른 연쇄의 존재를 이용함으로써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Frampton (1990)은 요소를 삭제하는 가능성과 동일 지표화된 공범주보다는 공범주를 원래로 남겨놓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선택 사항(option)은 중간흔적들의 ECP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흔적들은 삭제의 복원성에 종속되어야하는 관점을 취한다. 즉, 흔적들은 연쇄형성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연쇄형성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예문 (62)를 보자.

(62) [_{CP} who Comp [_{IP:t1j} [_{NP} friends of t2j] Infl [_{VP:t3j} admire t4j]]]

D-구조에서 who는 t2의 위치와 t4의 위치에서 나타난다. 지표화는 D-구조에서 자유롭고, who의 두개의 흔적들은 똑같은 지표를 갖는다. 연쇄(who, t1, t3, t4)는 이동의 직접적인 흔적이며, HGCA조건은 만족되어진다. 왜냐하면 t3이 t4를 g-연결하고 (g-related)³²⁾, t1은 t3을 g-연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연쇄는 이동의 흔적이 아니다. t2위치에서 나타나는 who는 동일 지표화된 흔적을 남기며 단순히 삭제된다. 그때 연쇄형성이 S-구조에서 발생한다. 형성된 하나의 연쇄는 이동의 흔적(who, t1, t3, t4)이고, 두 번째 연쇄는 (who, t1, t2)이다. 결정적으로 두 번째 연쇄는 HGCA조건 때문에 단순한 이동의 흔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Infl은 t2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t2위치에서부터 IP의 부착은 HGCA조건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형적인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인 (63)과 관계절의 구조를 나타낸

31) 삭제의 복원성(Recoverability of Deletion)은 흔적들의 내용이 복원되어지는 것을 요하는데, 복원은 S-구조에서 연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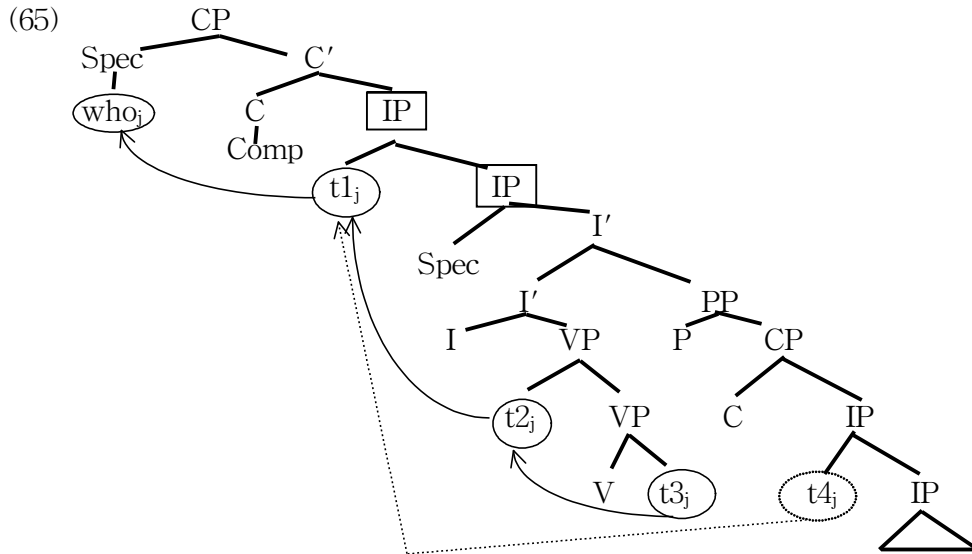
32) *x* is *g-related* to *y* if *x* is adjoined to a maximal projection whose head canonically governs *y*.
(Frampton 1990: 53)

(64)을 보자.

(63) Alex, who we liked t before we met t, ...

(64) $[_{CP} \text{who}_j \text{Comp } [_{IP:t1_j} \text{we Infl } [_{VP:t2_j} \text{like } t3_j]] [_{PP} \text{before } [_{CP} \text{Comp } [_{IP:t4_j} \dots]$
 Chains: $(\text{Who}_j, t1_j, t2_j, t3_j)$ and $(\text{who}_j, t1_j, t4_j, \dots)$

기생연쇄형성을 위한 중요한 연결(link)은 $t1$ 에서 $t4$ 로까지의 연결이다. HGCA조건은 $t2$ 위치에서 주절 IP로 부착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Infl이 $t2$ 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t4$ 위치에서 주절 IP로 부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t4$ 가 주절 Infl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생연쇄의 형성은 일차연쇄의 존재에 달려있다. $t4$ 는 사이를 방해하는 오직 하나의 장벽인 부가어 PP를 가지고 있고, 전치사가 부가어구의 CP를 어휘 표시한다고 가정하면, $t4$ 는 $t1$ 에 하위 인접한다. 또한 $t2$ 나 $t3$ 도 $t1$ 이 $t4$ 를 국부 결속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t2$ 나 $t3$ 이 부가어구를 성분통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4)은 (65)과 같다.



위의 수형도는 부가어절 안에서 이동의 실질적인 흔적은 기생연쇄를 확

립하기 위해 주절 IP에 하위 인접한 지점에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 분석은 부가어절 내에서 wh-연쇄 형성에 대한 제약들이 기생공백의 분포의 제약들을 반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즉각 만든다.

Frampton (1990)은 기생 연쇄 형성에 포함되는 두개의 wh-연쇄가 똑같은 운영자를 핵으로 갖는다고 제안했을지라도, 일차연쇄와 기생연쇄와의 차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일차연쇄는 이동의 흔적이며, 기생연쇄는 S-구조에서 연쇄형성의 근거로만 형성될 수 있다³³⁾.

다음으로 관계절 내의 기생공백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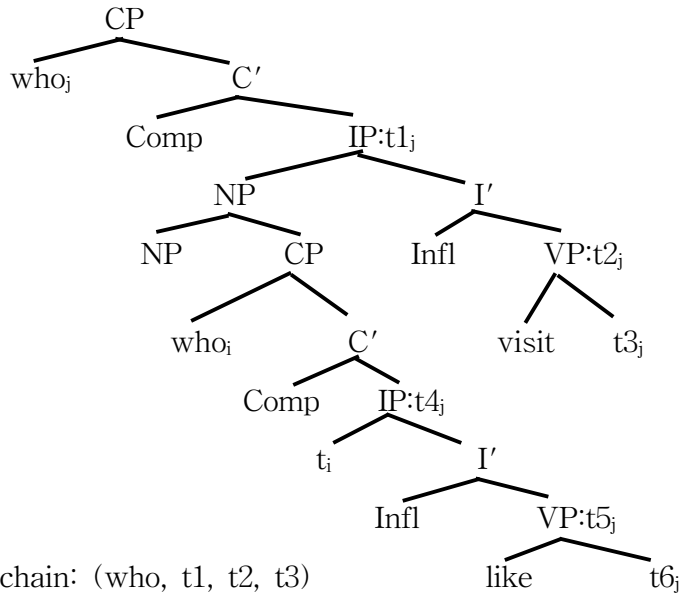
- (66) a. Jack, who [everyone who likes t] visited t, ...
 b. *Jack, who [everyone who likes t] visited me, ...
 c. *Jack, who I met [everyone who likes t], . . .

(66a)에서 NP 내에 있는 공백의 기생적인 특징은 (66b)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사실은 NP가 어휘표시된 목적어인 (66c)에서도 적출이 가능하지 않다. Frampton (1990)은 관계절이 NP에 부가된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만든다. 이러한 가설 하에서 (66a)를 (67)처럼 나타낼 수 있다.

33) 기생연쇄와 일차연쇄사이의 통사적 차이를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Kayne (1983)이 제시한 예문을 살펴보자.

(1) a. which books about himself did John file before Mary read?
 b. *which books about herself did john file before Mary read?
 (1)의 예문은 전이된 wh-구(fronted wh-phrase)의 결속이론 속성들은 기생연쇄가 아닌, 일차연쇄의 꼬리와 관련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S-구조에서 나타나는 운영자는 일차공백의 위치에서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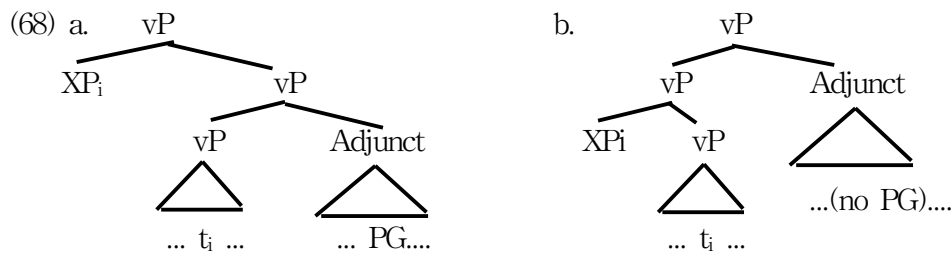
(67)



기생연쇄형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는 t1과 t4의 관계이다. 관계절은 NP의 상위분절(outer segment)에 의해서만 관할되기 때문에 NP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NP는 t1과 t4를 분리할 수가 없어서 t4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CP가 어휘표시 안되므로 t1과 t4의 관계는 오직 하나의 장벽인 CP가 있기 때문에 하위인접을 만족한다. 앞의 (59)의 NP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벽을 건넌기 때문에 하위인접이 만족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issenbaum (2000)의 이론을 살펴보자. Chomsky (1986)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Nissenbaum (2000)은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섬들은 공운용자구조이며, 기생공백이 발견되는 부사어절의 종류들은 의미적 결과로 인해 완전한 vP에 부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생공백이 그것을 포함하는 섬 위에 영역(scope)을 가진 음성적인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된다는 것은 그 섬이 하나의 절이기보다는 일항술어(one-place predicate)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Nissenbaum (2000)은 주장하며, 또한 그러한 공운용자구조는 (운용자가 overt이거나 empty일 수도 있는)

관계절과 비슷하지만 NP보다는 vP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without reading it]과 같은 부가어절을 정상적으로 vP 절로 수정할 수 있다면, [Op_i without reading _i]과 같은 공운용자(즉, a predicate) 역시 vP 와 함께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적 합성은 vP의 외곽지정어(outer spec vP)³⁴ 위치로 DP의 인상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이동의 결과는 (lower segment) vP를 파생된 술어(predicate)로 바꾸는 것이다. 즉, 공백의 위치에 있는 변항을 결속하는 람다 추출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때 공운용자 구조와의 합성은 두 개의 술어(lower vP segment and adjunct)가 술어 변형(predicate modification)에 의해서 합성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능적용(function application)에 의해서 인상된 XP에 적용된다. vP의 외곽지정어위치에 있는 wh-이동의 중간 흔적과, 그것 바로 아래에 있는 vP의 부가어(null operator)는 기생공백 인허를 위한 것이다. 즉, Nissenbaum (2000)이 주장하는 ‘outer spec/inner adjunct’ 배열은 기생공백을 의무적인 것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 부가어 속에 기생공백이 없다면 이와 같은 배열은 비문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물론, vP-부가어절이 항상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Nissenbaum (2000)은 DP가 부가어구를 아래에 있는 구조로 제시한다. 먼저 다음 아래의 구조들을 보자.



34) 그러나 Niseenbaum (2000)이 주장하는 vP의 외곽 지정어위치는 Chomsky (1995)가 주장하는 위치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Nissenbaum (2000)이 주장하는 그 위치는 vP에 부가하는 위치를 말한다.

Nissenbaum (2000)은 기생공백이 허용되는 구조는 (68a)이고, 기생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68b)라고 주장한다. 또한 wh-이동의 중간흔적이 경유하는 vP의 외곽지정어(즉, vP에 부가하는 위치)자리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Nissenbaum이 제시한 예문들을 살펴보면, wh-중간흔적의 자리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자리인데, 기생공백을 인허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비논항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에 있어서 wh-이동의 경우에, 중간 흔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중첩된 vP-부가어(stacked vP adjuncts)와 외치(extraposition)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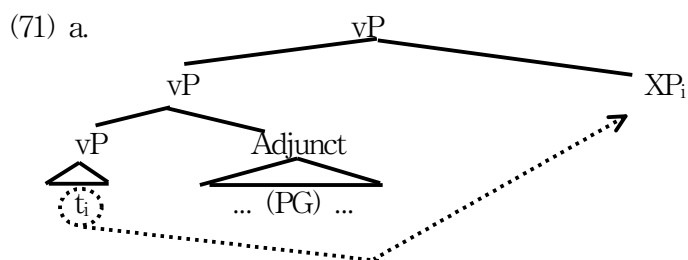
Larson (1988a)은 예문(69), (70)같이 중량명사구전이(HNPS)가 기생공백(PG)을 인허한다고 할지라도, NP는 기생공백 대신에 대명사를 갖는 부가어 혹은, 기생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비슷한 부가어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문(69), (70)의 (a, b)를 각각(71a, b)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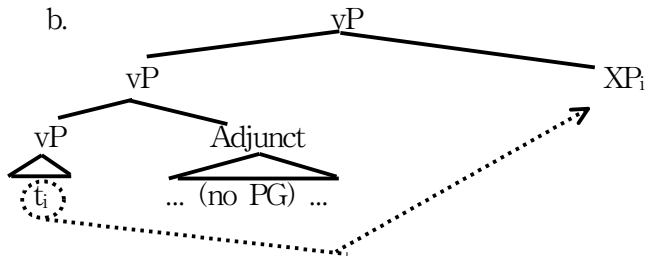
(69) a. John filed $\bar{c}_i$ [without reading $\bar{c}_i$] a recent article about Amazonian frogs_i

b. *John filed $\bar{c}_i$ [without reading it_i] a recent article about Amazonian frogs_i

(70) a. I hired t_i [without interviewing e_i] Mary'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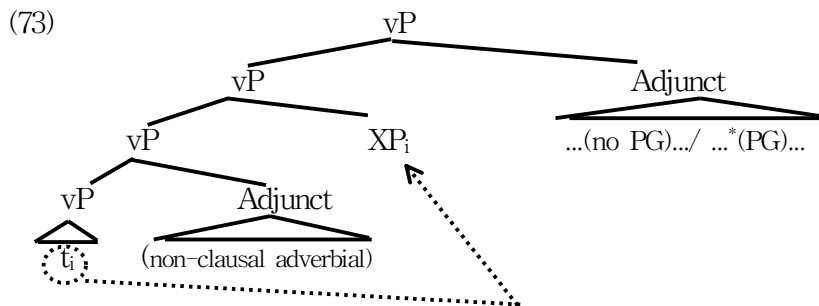
b. *I hired t_i [without interviewing him_i] Mary'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_i





반면에, (72)는 (기생공백이 없는) 똑같은 부가어가 부사구(non-clausal adverbial)를 지나는 중량명사구전이현상을 겪는 NP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 아래 예문과 그 수형도를 보자.

- (72) a. John filed $__i$ in the top drawer a recent article about Amazonian frogs;
[without reading it/* $__$]
b. I hired $__i$ with no hesitation Mary'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
[without interviewing him/* $__$]



다음 증거인 관계절 외치는 NP의 한 부분만이 이동된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중량명사구전이와 같다. 부가어절을 지나서 이동된 wh-구에서 관계절의 외치는 기생공백을 필요로 한다.

- (74) a. Who_i did you praise $__i$ [in order to impress $__i$] [that teaches literature at Harvard]
b. *Who_i did you praise $__i$ [in order to impress him] [that teaches literature at Harvard]

- (75) a. [?]What film_i would you see _i [if I could get tickets for _i][that John recommended]
 b. *What film_i would you see _i [if I could get tickets for it][that John recommended]

반면에, (76), (77)에서처럼 vP-부가어절의 왼쪽에 나타나는 외치된 관계절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공백 없이도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

- (76) a. *Who_i did you praise _i [that teaches literature at Harvard][in order to impress _i]
 b. Who_i did you praise _i [that teaches literature at Harvard][in order to impress him]
 (77) a. *What film_i would you see _i [that John recommended][if I could get tickets for _i]
 b. *What film_i would you see _i [that John recommended][if I could get tickets for it]

이를 통해, 인상된 NP가 vP-부가어절 보다 더 높이 있다면, 기생공백은 의무적이다. 반면에 인상된 NP가 vP-부가어절 보다 더 낮다면, 기생공백을 인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중간 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하기 위해서 부가어 위에 있어야 하고, 인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어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마지막 증거로 중첩된 vP 부가어를 보자. 예문 (78)과 (79)은 두개의 부가어가 기생공백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78) a. Who_i did you praise _i to the sky [after criticizing _i][in order to surprise _i]?
 b. Who_i will you hire _i [without interviewing _i][if John recommendeds _i]?
 (79) a. Who_i did you praise _i to the sky [after criticizing him][in order to surprise the poor man]?
 b. Who_i will you hire _i [without interviewing him][if John recommendeds him]?

그러나, 두 개의 부가어 중에 단지 하나만 기생공백을 포함한다면, 비대칭적인 문장으로 나타난다. 예문 (80)처럼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부가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문장은 문법적이지만, 예문(81)처럼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부가어가 가장 밖에만 있는 문장은 수용가능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의 패턴은 wh-이동의 중간 흔적이 두 개 중의 하나의 vP-부가어 위에 있거나, 혹은 vP-부가어 아래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vP-부가어 위에 혹은 아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중간흔적의 영역(scope)속에 부가어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부가어라도 기생공백을 포함해야 한다, 반면에 중간흔적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가어는 기생공백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80) a. Who_i did you praise to the sky [after criticizing][in order to surprise him]?
 b. Who_i will you hire [without interviewing][if John recommendeds him]?

- (81) a. *Who_i did you praise to the sky [after criticizing him][in order to surprise]?
 b. *Who_i will you hire [without interviewing him][if John recommendeds]?

따라서 wh-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한다는 주장에 대한 3가지 종류의 증거는 Nissenbaum (2000)의 가설을 강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생공백이 있는 부가어와 그렇지 않은 부가어의 구조적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Nissenbaum (2000)은 wh-이동의 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생공백을 설명하고 있다.

3.3 기존이론 분석의 문제점

지금까지 지배결속이론 내에서 기생공백구문을 크게 비이동식 분석과 이동식 분

석으로 구분하여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비이동식 관점으로써 Chomsky (1982)와 Kayne (1983)의 이론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동식 관점인 Chomsky (1986b), Frampton (1990), Nissenbaum (2000)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먼저, Chomsky (1982)의 분석을 요약하면 D-구조에서 기생공백은 기저 생성된 대명사적 요소로서 일명 PRO이며 이동에만 가해지는 제약인 하위인접 조건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공범주에 대한 기능적 결정 방법에 따라 S-구조에서 기생공백은 실제공백의 선행사인 wh-어구에 의해 국부적으로 비논항 결속되는 변항이며 반-성분통어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허가 받게 된다.

그런데, α 가 변항인 t와 e를 비논항 결속한다는 구조는 운용자와 변항은 일대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Koopman and Sportiche (1982)의 양함원리 35)를 위반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운용자가 두 개의 변항을 비논항 결속하는 기생공백 구문은 이러한 양함원리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분석은 공범주가 도출과정에서 자질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문제점과 다음 예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어 그 허점을 드러낸다.

(82) a. He is a man whom [everyone who meets e] admires t

b. *He is a man whom [everyone who meets the woman who marries e] admires t

기생공백을 기저 생성된 PRO로 봄으로써 이동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하위인접 조건과도 무관해야 할 것이므로, (82a)에서의 기생공백보다 (82b)의 기생공백이 더 깊이 내포되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위의 두 문장이 문법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ayne (1983)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Kayne(1983)은 공범주원리 뿐만 아니라 하위인접 조건의 효과를 가지는 연결성 조건이 기저

35) Bijection principle (Koopman and Sportiche, 1982)

There is a bijective correspondence between variables and A'-positions. (That is, each operator must A'-bind exactly one variable must be A'-bound by exactly one operator.)

생성된 공범주와 이동에 의해 생긴 공범주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주어 섬 위반의 구문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합명사 제약위반이나 wh-구문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다. 복합명사구 제약을 위반하는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83) a. He's a man that [anyone who talks to e] usually likes t
 b. *He's a man that [anyone who meets people who talk to e] usually likes t

예문 (83)은 Kayne (1983)의 연결성 조건으로 보면 모두 문법적이어야 한다. (83a)에서 기생공백 β_1 의 g-투사와 실제공백 β_2 의 g-투사가 NP 절점과 VP 절점에서 서로 자매관계로서 만나고 있어 두 공범주의 g-투사집합과 선행사 α 는 하위 수형도를 형성하므로 이 문장은 문법적이다. 그러나 (83b)에서 β_1 의 g-투사는 people이 핵으로 있는 관계절 CP까지만 가야 하는데, 이 CP인 Z는 최대투사로서 핵 NP 즉, W와 기본 지배구조 $[_Y WZ]$ 를 형성하고 있어 β_1 의 g-투사는 왼쪽가지가 되는 주어 NP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결국 NP절점에서 기생공백 β_2 의 g-투사와 만나게 되어 연결성 조건을 만족시키고, 따라서 이 문장은 문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Kayne (1983)의 연결성 조건으로는 (83b)와 같은 유형의 복합명사구제약구문을 설명할 수 없다. 다음은 wh-섬 구문을 살펴보자.

- (84) *He's a man that [anyone who asks when to talk to e] usually likes t

(84)의 경우에도 β_1 의 g-projection은 오른쪽 가지를 따라 계속 투사되어 β_2 의 g-투사와 만나게 되고, β_1 의 g-투사집합과 β_2 의 g-투사집합, 그리고 선행사 α 는 서로 합쳐져서 하위 수형도를 형성하므로 연결성 조건하에서 문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문제가 된다.

Chomsky (1982)와 Kayne (1983)은 기생공백을 기저생성된 공범주로 분

석하였으나, 이러한 분석방법이 옳다면 다음 아래 예문들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Chomsky (1986), Browning (1987) 등은 기생공백을 공운용자가 이동함으로써 생긴 변항이라고 보았다.

- (85) a. This is the kind of food_i you must cook t_i [_{PP} before you eat e_i].
 b. *This is the kind of food_i you must cook t_i [_{PP} before meeting [_{NP} the man [_{s'} [_s you taught how to eat e_i]]]].

- (86) a. He is the man_i [_{NP} anyone who talks to e_i] usually likes t_i
 b. *He is the man_i [_{NP} anyone who meets [_{NP} the people [_{s'} who talk to e_i]]] usually likes t_i.

Chomsky (1982)의 주장대로 기생공백이 기저 생성되었다고 보면 (85)와(86)에서 (a, b)의 문장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a, b)의 모든 공범주들이 기저 생성되었다면 (b)의 문장들만이 비문법적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문법적이다. 그런데, 기생공백이 기저 생성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는 종속절의 첫 자리로 이동한다고 보면 (b)문장들만이 하위인접조건을 어기게 된다. 다시 말해 공운용자 이동을 설정하는 비교구문, 분열구문, 부정사 관계절, 목적구문 등의 여러 구문들은 Wh-이동과 동일한 문법적 현상을 나타내지만, 다른 점은 언제나 공 운용자 Op_i는 그를 성분통어하는 명사구와 동일 지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문의 해석상 특징을 wh-이동의 구조와 동일한 결속 원리로 설명하기 위하여 Chomsky (1986a)는 소위 강결속 조건(strong binding condition)³⁶⁾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36) (1) A variable must be strongly bound

(2) The range of a variable must be determined by its operator or by its antecedent.

Chomsky (1986a)는 논리형태(LF)의 허가조건에 쓰이는 (1)에 (2)를 추가하여 강결속 조건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어떤 변항이 강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운용자에 의해 그 변항의 범위가 결정되거나 선행사에 의해 그 변항의 값이 결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론을 근거로 (85-86)예문을 다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7) a. This is the kind of food_i you must cook t_i [_{PP} before [_S Op_i [_S you eat e_i]]].
 b. *This is the kind of food_i you must cook t_i [_{PP} before [_S Op_i [_S meeting
 [_{NP} the man [_{S'} [_S you taught how to eat e_i]]]]]].
- (88) a. He is the man_i [_{NP} anyone [_{S'} who_j [_S Op_i [_S t_j talks to e_i]]]] usually likes t_i
 b. *He is the man_i [_{NP} anyone [_{S'} who_j [_S t_j meets [_{NP} the people [_{S'} who_k
 [_S Op_i [_S t_j talk to e_i]]]]]]]] usually likes t_i.

Chomsky (1986b)에 의하면 (87b), (88b)의 기생공백이 두개의 장벽, 즉 NP와 S'를 넘어 이동하므로 하위인접조건³⁷⁾을 어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생공백이 실제공백의 운용자가 아닌 다른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된다는 주장은 Contreras (1984)에서 시작되어 Bennis and Hoekstra (1985), Chomsky (1986a, b), Jones (1987) 그리고 Browning (1987a, b)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공운용자 이동을 주장하면서 기생공백을 분석한 이동식 관점인 Chomsky (1986b)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Chomsky (1986b)는 반-성분통어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문장을 영-하위인접조건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그의 제안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Browning (1987:202)은 다음의 예문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 (89) a. ... [_{IP} β [_{VP} V α [_{PP} Op [_{PP} ... e ...]]]] ...
 b. Which paper did you read t before you filed e?
 c. *Which paper t disappeared before you could read?

37) β is *n*-subjacent to α iff there are fewer than *n*+1 barriers for β that exclude α.
 (Chomsky (1986b)는 하위인접의 개념을 두 요소사이에 존재하는 장벽(barrier)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의하며, 특히 두요소간에 전혀 장벽이 없는 경우를 영하위인접이라 하고 있다.)

(89a)를 살펴보면 공운용소 Op는 PP에 부가되어 VP 내에 있는 α 와는 영-하위인접하고, IP 내에 있는 β 와는 VP가 장벽이 되어 영-하위인접 하지 못한다. 따라서 (89b)에서는 t가 α 위치에 있으므로 문법적이고, (89c)는 t가 β 위치에 있어서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89c)에서 부가어 PP가 VP에 부가되거나 IP에 직접 관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9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영-하위인접조건으로 그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90) *Which paper_i [_{IP} t_i [_{VP} Op_i [_{VP} disappeared [_{PP} e_i'] [_{PP} before [_{CP} e_i' [_{IP} you could read e_i]]]]

(90)에서 t와 Op는 영-하위인접 조건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으로 잘못판단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89b)는 언제나 반-성분통어 조건을 위반하게 되므로 그 문법성을 설명 할 수 가 없다. 즉, 하위인접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부가어 PP가 VP 내에 있어야 하는 반면, 반-성분통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부가어 PP가 VP 내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Browning (1987)³⁸⁾이 지적한 Chomsky (1986)의 연쇄합성이 갖는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하위인접조건은 주어내 기생공백구문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91) a. He is a man that [_{NP} everyone [_{CP} Op_i who gives presents to e_i]] likes t_i
 b. Who would [_{NP} a picture of e_i] surprise t_i?

(91)은 반성분통어 조건은 만족시키지만, 주어 NP 내에 기생공백이 있

38) Browning (1987)은 Chomsky (1986)의 영-하위인접 조건 대신 1-하위인접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연쇄를 제안했다.

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영-하위인접조건은 항상 어기게 된다. 이때 NP는 논항이므로 PP부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장벽성을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생공백의 공운용소가 PP-부가되어 이동할 수 있다면, VP-부가도 가능하여 다음 (92)의 예문에서 t와 Op는 영-하위인접 조건을 준수하여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 (92) *Which paper_i [_{IP} t_i [_{VP} Op_i [_{VP} disappeared [_{PP} e_i'] [_{PP} before [_{CP} e_i' [_{IP} you could read e_i]]]]

마지막으로 PP-부가가 가능하다면 추출영역조건(CED)³⁹⁾으로 비문법성을 설명했던 다음 (93)와 같은 문장을 장벽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 (93) *How_i did you leave [_{PP} before fixing the car t_i]

(93)에서 how가 주절의 [Spec, CP]로 이동할 때 PP가 이동에 대한 장벽이 되어 비문법적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PP-부가를 허용하게 되면 PP가 장벽성을 잃게 되므로 문법적인 문장으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Chomsky (1986)는 지배결속 이론의 틀 안에서 초기에 기생공백을 D-구조에서 기저생성된 PRO로 보는 관점과는 달리 공운용자의 이동을 가정함으로써 많은 기생공백구문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나 그의 연쇄합성 조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구나 기생공백 구문을 분석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보편문법의 원리에 있어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39) CED (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

A phrase A may be extracted out of a domain B only if B is properly governed.

다음으로 Chomsky (1986b)의 이론을 수정하면서, 연쇄로 기생공백을 설명했던 Frampton (1990)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Frampton (1990)은 wh-이동에서 최대투사들의 부착에 관한 제약들은 IP에 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완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착에 대한 허가조건으로서 규범 핵 지배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제약을 만들었다. 이는 기생공백 현상의 향상된 설명과 that-흔적 효과의 간결화 된 설명을 제시한다. Frampton (1990)의 이론을 보면, 같은 운용자를 머리로 하는 두 개의 wh-연쇄가 있지만, 각각의 연쇄는 국부결속을 만족한다. 둘째, IP에 부착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VP속에 있는 일차연쇄와 기생연쇄사이의 연결 장소가 된다. 셋째, 기생연쇄는 1-하위인접을 만족한다.

이러한 Frampton의 이동이론은 관계절 내에서의 기생공백을 분석하기가 특히 어렵다. IP의 부착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생공백의 개선된 설명을 제공한다.

- (94) a. Jack, who [everyone who likes t] visited t, ...
 b. *Jack, who [everyone who likes t] visited me, ...
 c. *Jack, who I met [everyone who likes t], . . .

(94a)에서 NP 내에 있는 공백의 기생적인 특징은 (94b)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사실은 NP가 어휘표시된 목적어인 (94c)에서도 적출이 가능하지 않다. Frampton (1990)은 관계절이 NP에 부가된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만든다. 그러면, 관계절 NP가 목적어 위치에 있을 때 IP 부착이 왜 섬 위반으로 안 되는가? 다음 (95)의 배열을 보자.

- (95) [_{VP:t1j} V [_{NP} [_{NP} . . .] [_{CP} who [_{IP:t2j} . . .]]]]

그러나 이러한 배열은 t1이 t2에 g-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HGCA위반이다. VP의 핵인 V가 사이를 방해하는 CP 때문에 t2를 지배하지 않는다. 관계절 내에서 기생공백의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생공백의 가능성에 대한 주어 NP의 한정사(determiner)의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다음의 대조는 전형적이다.

- (100) a. Jack, who [everyone who likes t] visited t, ...
 b. ??Jack, who [the man who likes t] visited t, ...

NP에서 적출의 가능성에 대한 한정사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화란어(Dutch)에서 이와 일치하는 예문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위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같은 운용자를 머리로 하는 두 개의 wh-연쇄가 있지만, 각각의 연쇄는 국부결속을 만족하며, 일차연쇄와 기생연쇄사이의 연결 장소로 IP의 부착을 설정했던 Frampton (1990)의 개념은 IP의 부착으로 실제 연쇄에는 영-하위인접조건을, 기생연쇄에는 1-하위조건을 따른다. 이는 기생공백 인허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편문법에 입각해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Nissenbaum (2000)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Nissenbaum은 Chomsky (1986)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섬들은 공운용자구조이며, 기생공백이 발견되는 부사어절의 종류들은 의미적 결과로 인해 완전한 vP에 부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생공백이 그것을 포함하는 섬 위에 영역을 가진 음성적인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된다는 것은 그 섬이 하나의 절이기보다는 일항술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공운용자구조는 vP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Nissenbaum (2000)은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적 합성은 vP의 외곽지정어(여기서는 Chomsky (1995)가 주장

하는 것과는 달리, vP에 부가하는 위치를 말한다) 위치로 DP의 인상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vP의 외곽지정어 위치에 있는 wh-이동의 중간흔적과, 그것 바로아래에 있는 vP의 부가어(null operator)는 기생공백 인허를 위한 것이다. 즉, wh-이동의 중간흔적이 경유하는 vP의 외곽지정어(즉, vP에 부가하는 위치)자리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Nissenbaum의 주장은 부가어 내의 기생공백을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던 중량명사구전이 구문까지도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부가어 내의 기생공백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주어 내재 기생공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4장에서 기존의 이론의 문제점을 보다 보편문법에 가까운 설명을 하기 위해 기생공백을 공운용자 이동으로 분석했던 Chomsky (1986b)의 이론을 받아들여 기생공백의 섬 효과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부가어 내의 기생공백 뿐만 아니라, 주어 섬 내의 기생공백의 문법성에 대해서도 보편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wh-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한다고 보는 Nissenbaum (2000)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공운용자의 자질 점검을 통한 연쇄원리에 입각해 Chomsky (1995)의 문법체계 내에서 설명하겠다.

제 4 장 최소주의 이론에 의한 분석

1980년대 초에 언어연구의 초점을 보편성에 맞추려고 한 지배결속이론은 이전의 여러 가지 문법 규칙체계를 버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수의 원리를 찾는 한편 각 언어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장치를 설정하여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으로 언어현상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1993년에 Chomsky가 발표한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를 계기로 최소주의라는 언어이론이 대두되게 되면서, 기존의 이론에서 가정되었던 언어원리들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여 그 중의 일부를 재해석하거나 해체되게 되었다.

지배결속이론이 자연언어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술하는데 그쳤다면, 언어능력이 인간의 인지체계(cognitive system) 내에서 단순성, 경제성, 대칭성, 비잉여성 등등의 조건으로 언어현상을 분석하고자 한 최소주의 이론은 그런 모습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배결속이론에서는 언어적 층위로서 D-구조, S-구조, LF, PF를 가정하였으나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D-구조와 S-구조는 언어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층위가 아니라고 보아 제거한다. 즉, 언어는 소리와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 이론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언어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음성형태 접합면(PF-interface)과 논리형태 접합면(LF-interface)만 존재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D-구조와 S-구조는 개념적 자연스러움을 위반하는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최소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경제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문법의 이론적 가정을 최소화해야 그 문법의 설명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동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외현적 이동보다는 경

체적인 내현적 이동이 선호되며, 이동은 최대한 연기되어 일어난다.

이러한 최소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기생공백구문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이론을 토대로 영어의 기생공백구문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4.1 최소주의 이론의 문법체계

이동이 범주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을 이동하는 작용이라고 보는 최소주의 프로그램(Minimalist Program)에서는 α -이동(Move- α)의 개념을 F-이동(Move-F)의 개념으로 바꿔서 이동을 설명하려한다⁴⁰⁾. 이러한 자질들은 크게 LF 접속 층위의 표시를 생성하는 연산 작용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자질들과 그렇지 못한 비접근성 자질들로 분류할 수 있다. 접근성 자질들은 모두 어휘 항목들의 형태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형식 자질(Formal Feature: FF)이라 부른다. 이러한 형식자질들은 다시 접속층위(interface)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해석성 자질(interpretable feature)과 그렇지 못한 비해석성 자질(-interpretable feature)로 구분될 수 있다.

(101) a. Interpretable feature: Categorical features and $\emptyset$ -features of nouns

b. -Interpretable feature: Case features, etc.

해석상 자질들은 LF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점검과 상관없이 LF 표시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해석성 자질들은 점검관계(checking relation)에 들어가서 적어도 LF 접속층위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어휘 항목의 형식 자질 FF(LI) 중에서 비해석성 자질이 LF 표시에 나타나게 되면 완전 해석원리를 어기게 되어

40) 이동작용은 α 의 어떠한 자질 F를 점검할 필요성에 의해 유발되는 작용이므로,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점검이 필요한 F만이 이동하면 되지 F를 내포하는 범주 전체가 이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α -이동은 F-이동으로 대체되어야한다.

도출이 파산(crash)하게 된다. 자질 점검과 관련하여 해석성 자질과 비해석성 자질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 (102) a. Features visible at LF [i.e. +Interpretable feature] are accessible to the computation C_{HL} throughout, whether checked or not.
b. Features invisible at LF [i.e. -Interpretable feature] are inaccessible to C_{HL} once checked.

다시 말해 해석성 자질들은 LF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점검과 상관없이 LF 표시에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석성 자질들은 1회 이상 점검에 관여할 수 있다. 반면에 비해석성 자질들은 LF 표시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일단 점검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격자질을 비롯한 비해석성 자질들은 점검과 동시에 더 이상 연산 작용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라진다”는 것은 모두 연산작용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Chomsky (1995)는 탈락(deletion)과 삭제(erasure)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탈락과 삭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러한 탈락은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탈락된 요소는 가능하면 삭제되어야 한다⁴¹⁾.

(103) 탈락(deletion)

A deleted feature is invisible at LF but accessible to the computation.

(104) 삭제(erasure)

An erased element is inaccessible to any operation, not just to interpretability at LF.

41) (1) a. A checked feature is deleted when possible.
b. Deleted a is erased when possible.

(Chomsky, 1995: 280)

즉 점검에 의해 탈락은 되지만 삭제는 되지 않고 계속 연산작용에 관여할 수 있는 자질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삭제는 좀 더 강한 형태의 탈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현적 통사부(overt syntax)에서 일어나는 이동은 반드시 범주이동이 되어야 한다⁴²⁾. 예를 들어 주어가 [Spec, TP]로 이동하는 경우에 자질이동에 의하면 동사구 내부의 주어 DP의 핵이 가지고 있는 [D]자질만 이동하고 DP의 나머지 부분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Chomsky (1995: 265)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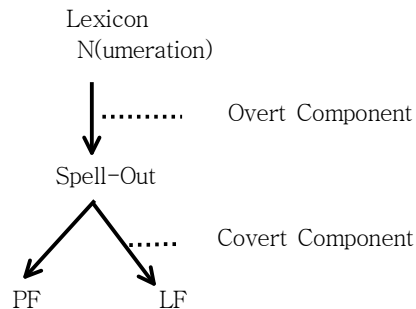
(105) Move F carries along FF[F].

F는 점검이 필요한 어휘항목 LI의 자질이며 FF[F]는 F를 포함하는 LI의 형식자질들이다. 따라서 (105)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어휘 항목의 형식 자질 F가 형태적 필요성에 의해 이동할 때 F단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LI의 모든 형식자질들이 “동반이동”(pied-piping)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 이동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성 조건이 따른다.

(106) F carries along just enough material con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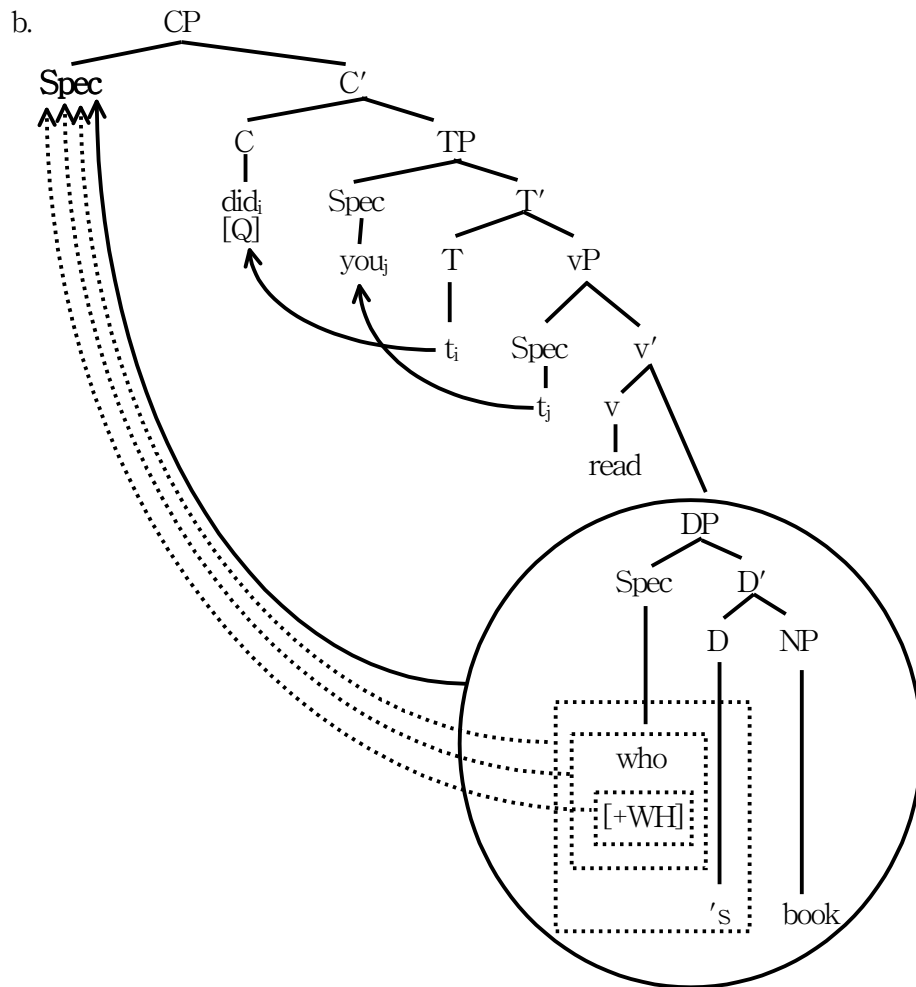
결국 도출의 수렴(convergence)을 위해서는 F만 이동해서는 안되고 필요한 만큼의 “부수화물”(extra baggage)을 함께 이동(“일반화 동반 이동”)시켜야 한다. 그

42)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문법모형은 문자화(spell-out) 이전을 외현부(overt component(syntax))로, 문자화 이후를 내현부(covert component)로 구별한다.



런데 이러한 일반화 동반 이동은 주로 음운부의 특성에 기인한다. 고립되어 나타나는 자질들이나 여기저기 흩어져 나타나는 낱말들의 단편들은 음운부의 규칙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도출이 취소될 것이다. 결국 PF수렴을 위해 일반화 동반이동이 일어난다. 다음 (107)를 보자.

(107) a. Whose book did you read?



위 (107)에서 C가 가지고 있는 [Q]의 자질은 강하기 때문에 [Q]의 자질이 점점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Whose book did you read?’에서 F-이동이 who의 WH-자질만 비가시적으로 CP의 Spec 위치로 이동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비가시적으로만 이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WH-자질만을 PF에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WH-자질만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who의 affix인 's를 남겨두고 who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WH-자질과 who를 합쳐서 그것만을 이동시켜 [Q]의 자질을 점검할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whose만 이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whose만의 이동은 전통적인 X-bar 구조상으로 보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통사적 요소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whose book전체는 하나의 독립된 통사적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이동해야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어휘요소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수반이동이다. 그런데 위에서 연산작용에 관계되어 인상하는 것은 WH-자질이고 나머지 부분은 합치를 위해서 (106)의 경제성의 조건에 의해 수반이동으로 자동적으로 함께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형식자질의 내현적(covert) 이동은 그 자질을 포함하는 범주의 형식 자질들 FF[F]와 함께 이동하고 외현적 이동은 PF수렴을 위해 형식자질을 포함하는 범주가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이동현상을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Chomsky (1995)는 다시 이동의 개념을 유인(Attract)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F가 표적 K쪽으로 인상하는 현상을 전자가 후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후자가 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이동 현상을 점검영역을 형성하는 점검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유인의 개념이다. Chomsky (1995: 297)의 자질유인(Attract F)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108) 자질유인(Attract F)

K attracts F if F is the closest feature that can into a checking relation with a sublabel of K

위 (108)에 따라서 만약 표적 K가 자질 F를 유인하면 F를 내포한 α 가 K와 병합(merge)하고 α 는 K의 하위표찰(sublabel)의 점검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정의

에는 이동작용의 최후수단(Last Resort)과 최소 고리 조건(Minimal Link Chain)이 모두 들어가 있다. 이러한 유인의 개념에서는 최후수단과 최소 고리조건은 이동의 결과를 살피는 별도의 조건이 아니라 유인작용 자체의 정의적인 성격으로 규정됨으로써 양 조건들을 어기는 유인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먼저, 지연성(Procrastinate)과 이기성(Greed)의 두가지 속성⁴³⁾을 가지고 있는 최후수단의 개념을 알아보자.

(109) 최후수단 (Last Resort Condition)

Apply an operation OP only if it is necessary for convergence.

가령 어떤 통사작용의 대상 α 에 대해 α 조작 작용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110) α 조작(Affect α)

Do anything to any syntactic object α .

α 조작은 크게 α 이동(Move α), α 삽입(Insert α) 및 α 삭제>Delete α)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모든 작용들은 도출의 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즉, 모든 규칙의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Chomsky (1991)은 LF층위에서 적법하게 해석되어 완전해석원리(FI)⁴⁴⁾를

43) (1) 지연성(Procrastinate)

LF movement is "cheaper" than overt movement. (i.e. delay performing a necessary operation OP until LF, if possible.)

(2) 이기성(Greed)

Move α applies to an element α only if morphological properties of α itself are not otherwise satisfied.

44) Principle/ condition of Full Interpretation (FI)

Every element of PF and LF must receiv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i.e. must be properly licensed)

만족을 하기위해서 LF 층위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는 각각 연쇄로 해석된다고 가정하였으며, Chomsky & Lasnik (1993; 546-547)은 적법한 연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11) 적법한 연쇄 (Legitimate Chain)

A chain $C = (\alpha_1, \dots, \alpha_n)$ is a legitimate (LF) chain only if

- (a) C is uniform, or
- (b) C is an operator-variable construction (α, β) , where
 - (i) α is in an A'-position, and
 - (ii) β heads a legitimate (uniform) chain.

연쇄의 일관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2) 연쇄의 일관성(Chain Uniformity)

A chain $C = (\alpha_1, \dots, \alpha_n)$ is uniform with respect to property P (UN[P]) if

- (a) each α_i has property P, or
- (b) each α_i has non-P.

Chomsky (1993: 27)는 적법한 연쇄들만이 LF 층위에서 적법하게 해석되며 완전해석원리에 의해 허용되는 적법한 해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Chomsky (1991; 440, 1993; 27)는 적법한 연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종류의 연쇄로 분류하였다.

(Chomsky 1986b, 1991, 1995, Chomsky & Lasnik 1993)

위와 같은 완전해석원리는 접속층위의 표시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는 반드시 적법하게 해석을 받아야 하며 적법한 해석대상이 되지 못하는 요소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3) 적법한 연쇄의 종류

- i. Argument chains: Each element is in an A-position, α_1 Case-marked and α_n θ -marked, in accordance with the Chain Condition.
- ii. Adjunct chains: Each element is in an A'-position.
- iii. Lexical element [head/ X^0] chains: each element is in an X^0 -position.
- iv. Predicates, possibly predicate chains if there is predicate raising, VP-movement in overt syntax, and other cases.
- v. Operator-variable constructions, each a chain (α_1, α_2) , where the operator α_1 is in an A'-position and the variable α_2 is in an A-position.

따라서 도출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연쇄만으로 구성된 LF를 생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LF의 요소는 적법한 대상만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외의 잉여적인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표시의 경제성을 준수하게 된다. 표시의 경제성과 마찬가지로 도출의 경제성도 도출의 최소화로 실현된다. 생성절차가 생성하는 도출은 불필요한 절차가 모두 제거되어 단순화·최소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소노력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성 개념에서 볼 때 도출은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114) 도출의 경제성(Economy of Derivation)

Derivations must be minimal in cost, i.e., there should be no superfluous/extra steps in derivations.

도출비용의 최소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동작용의 적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필요에 의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그 이동작용은 짧으면 짧을수록 경제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원거리 이동이 아닌 단거리 이동이 되도록 이동의 연쇄 고리(chain link)를 짧게 해야 한다는 도출의 경제 원리인 최소고리조건을

Chomsky & Lasnik (1993:546)은 제안한다. (115)의 조건에 의하면, 연쇄형성을 할 때에는 고리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115) 최소고리조건(MLC)

Minimalize chain links.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형식자질의 점검이 이동 또는 유인의 유발자이다. 즉 이동이건 유인이건 상관없이 점검자(유인자-attractor)의 자질과 피점검자(피유인자)의 자질이 점검관계를 형성하여 점검된다.

점검관계(checking relation)는 “X가 Y를 점검한다”는 이항관계이므로 필연적으로 점검하는 자(checker)와 점검받는 자(checkee)가 있어야 한다. 이동을 형식자질의 점검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본다면 점검관계에 관여하는 점검자와 피점검자는 모두 형식 자질들이 된다.

자질 점검관계에 있어서 점검자는 이동의 표적이 되는 요소의 핵이 가지고 있는 자질 즉 표적 K의 하위표찰(sublabel)이다. 한편 피점검자는 이동하는 형식자질 F가 된다. 물론 이때 함께 동반이동 즉 무임승차하는 FF[F]도 피점검자로서 점검을 받게 된다.

(116) a. checker: a sublabel of target K (=a feature of $H(K)^{0max}$)

b. checkee: FF[F]

그러나 이러한 점검자와 피점검자의 형식자질이 조화(match)될 때에만 점검이

45) 연쇄형성의 경제성의 비교는 고리의 숫자에 의한 비교가 아니라 고리의 길이에 의한 비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Chomsky(1993:17)는 고리의 “길이”를 “거리(distance)”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고리 L의 길이는 L을 형성하고 있는 상위점 P_2 와 하위점 P_1 사이의 거리를 가리킨다.

(1) $L = (P_2, P_1)$

또한, 고리의 길이를 비교할 때에는 등거리(equidistance)개념이 작용한다.

(2) 등거리(equidistance)

α and β are equidistant from γ if α and β are in the same minimal domain of a chain CH.

일어난다. 자질 부조화(mismatch)를 일으키는 형상은 도출자체가 취소된다. (117)에서 보듯이 두 자질이 서로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점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7) Checking configuration Vs. Checking Relation

Suppose that each feature F' of $FF[F]$ (including F) is in the checking domain of each sublabel f of target K . Then

- (a) F' is in a checking configuration with f .
- (b) F' is in a checking relation with f if, furthermore, F' and f 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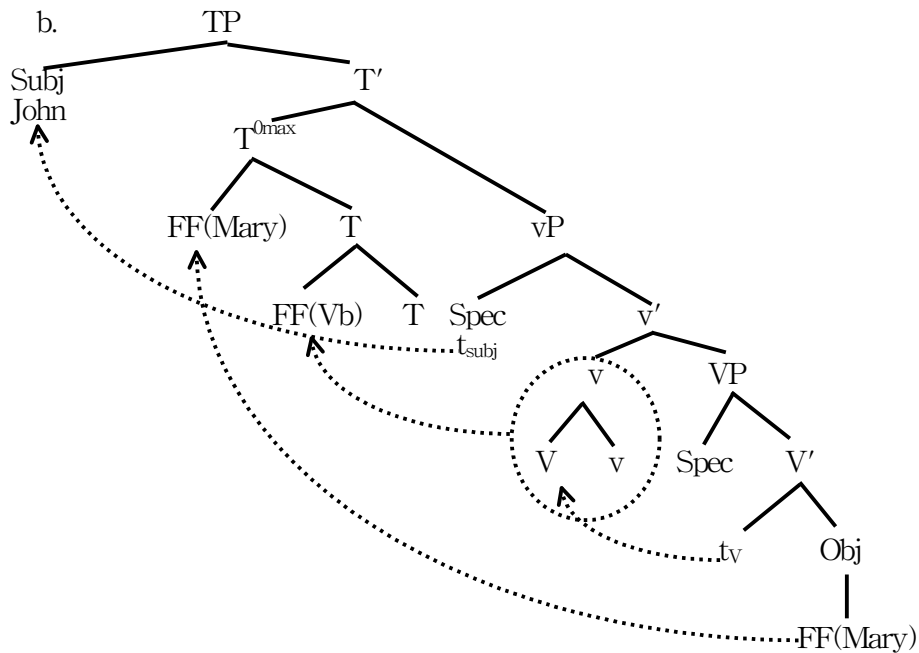
가령 자질 F 가 표적 K 의 핵 $H(K)$ 의 점검 영역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이동하는 F 는 단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F 를 포함한 모든 형식자질들 $FF[F]$ 와 함께 이동하므로 (F 를 포함한) $FF[F]$ 의 각각의 형식자질 F' 은 K 의 각각의 하위표찰 f 의 점검영역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FF[F]$ 의 자질 F' 이 K 의 하위표찰 f 의 점검영역에 놓이게 될 때 F' 은 f 와 점검형상(checking configuration)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리고 F' 과 f 가 조화하면 양자는 점검관계(checking relation)를 이루게 되어 정상적인 점검이 일어난다.

이러한 점검관계에 있어서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점검자 자질과 피점검자 자질들 간에 나타나는 해석성 문제이다. 표적 K 의 핵 $H(K)$ 가 내포하고 있는 형식자질들은 $H(K)$ 자신의 범주자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해석성 자질들이다. 다시 말해 점검영역을 만들어 내는 핵의 형식자질들은 그 자체의 범주 자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해석성 자질들이다. 결국 형식자질 점검에 관여하는 점검자 자질들은 모두 비해석성 자질들이다. 물론 점검 영역을 만드는 핵 $H(K)$ 자체의 범주 자질은 해석성 자질들이지만 이러한 핵의 해석성 자질들은 점검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어떤 핵의 점검 영역에 들어가 점검을 받는 피점검자 자질은 해석성 자질일 수도 있고 비해석성 자질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Chomsky (1995)의 기본적인 틀은 내현적 이동이나 외현적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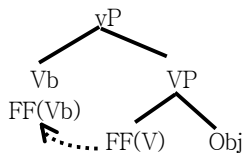
동이나 모두 먼저 F-이동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이동은 F-이동이 자연성에 의해서 비가시적(내현적)으로 나타나고, 가시적(외현적) 이동의 경우에만 (106)의 경제조건에 의해서 다른 자질들이 무임승차자로서 함께 이동한다고 하였다. Chomsky (1995)에서 타동사 구조도 부사의 위치를 VP의 Spec으로 인정하여 Larson의 이중목적어 구조처럼 VP-Shell 구조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했다. 다음 (118)을 보자.

(118) a. John loves Mary.



영어동사는 비가시적인 인상을 하기 때문에 FF(V)의 형태로⁴⁶⁾ 이동되거나 아니면 V가 그대로 이동하여 경동사 v자리에 부가되어 Vb(verbal element)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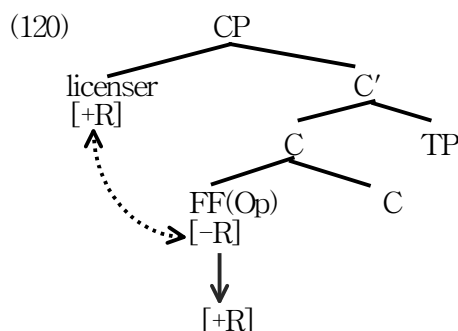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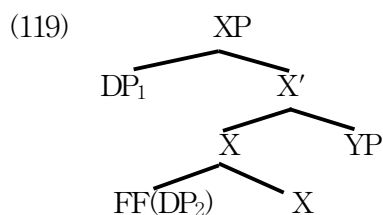
46) Checking of $[V^-]_{STR}$ of v



한 다음, 이 Vb에 의해 가시적(외현적)인 이동하는 주어가 TP의 Spec위치에 인상된다. 그런 다음 내현부에서 이 Vb는 비가시적으로 T로 인상되어 부가된다. Vb는 V를 소유하고 있는데, Vb가 T에 부가되어야 비로소 목적어의 격자질과 φ -자질을 점검받기위해 목적어의 FF(Obj)가 비가시적으로 이동하여 Vb가 부가되어 있는 T 위에 부가되어 T^{0max} 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Vb내에 있는 V에 의해서 목적격과 φ -자질을 점검받는다. 또한 Chomsky (1995)의 자질부가(feature adjunction)에 있어 그것이 핵이 아닌 XP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영어에 있어서는 위의 (1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Chomsky, 1995: 269, 361).

4.2 연쇄조건과 자질점검이론에 의한 기생공백 분석

아래 (119)의 지정어-핵 구조는 선행사와 대응사적 요소인 두개의 DP가 자질점검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본다. 다시 말해 기생공백의 운용자와 허가자(실제공백의 운용자)인 두 DP가 점검관계에 들어가 기생운용자가 실제운용자와의 점검관계를 통해 의미적인 해석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⁴⁷⁾. (119)는 최대투사인 DP가 SPEC으로 들어오고 다른 DP의 형식 자질은 X에 내현적 부가하는 Y의 위치로 들어오게 된다. 다시 말해 (119)와 같이, DP₁과 DP₂의 형식자질들이 점검을 받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Tanaka; 1996, 김미준:1998).



47) 이러한 주장은 대응사와 선행사가 $[\pm R]$ 이라는 자질을 점검하는 형상을 이룬다는 가정에 근거로 한 Yi (1994)와 Tanaka (1996)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미준 (1998)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생공백구문에 포함된 공운용자인 기생운용자가 대용사가 가지고 있는 [-R]자질을 가지고 있고, 허가자의 [+R]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⁴⁸⁾⁴⁹⁾. 그 점검을 통해 [-R]은 [+R]이 되어 그 운용자를 허가자와 동일지시(coreferential)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시를 LF 표시층에 주게 된다⁵⁰⁾.

위(120)의 구조에서, 운용자의 형식자질 FF(Op)가 C-부가 위치로 이동한 동기는 기생공백의 허가자는 항상 의문사구, 관계운용자(relative operator), 주제구화(topicalized phrase)등 운용자적 요소이기 때문에, 핵 C의 점검영역 안에서 운용자적 요소(operator-like element)를 필요로 하는 표적 C가 가진 [+Op]의 유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해석성 자질들은 유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자의 자질 [+R]에 의해 직접 유인될 수는 없다.

CP의 지정어 위치가 외현적 통사부에서 실제 운용자인 DP로 채워졌을 때 C의 [+Op]는 탈락되지만 허가되어야 할 기생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C의 탈락된 [+Op]는 삭제되지 않는다. 탈락된 요소는 삭제되지 않는 이상 연산과정에 접근 가능하므로 탈락된 [+Op]는 그것의 점검영역으로 FF(Op)를 유인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해석성 자질[-R]이 점검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어 그 도출은 파산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86), Browning (1987b) 등의 학자들이 주장한 공운용자 이동을 받아들여 공운용자가 흔적을 남기고 내포된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는 공운용자의 외현적 이동으로 기생공백의 점

48) 기생공백에 나타나는 지시적 의존성(referential dependency)에 대한 Yi (1994)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49) (1) [-R] can be checked only if the element with [+R] asymmetrically c-commands the element with [-R].

(2) An element with [+R] must be disjoint from every c-commanding

[-R]점검에서 (1)과 같은 일반화를 가정할 수 있다. (1)의 근거는 [+R]을 가진 요소는 지시적으로 독립적이라 [-R]을 가진 요소에 의해 결속될 수는 없다는 것에 있다. 이 논리가 맞다면 (1)는 [-R]자질 점검에 대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다음 (2)와 같이 [+R]을 가진 요소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조건 (2)에 의하면 기생공백의 외현적 허가조건이 설명된다.

50) 기생공백이 다른 요소의 존재에 의존적이라는 것과 독립된 요소와 동일지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용사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생운용자의 자질 [-R]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운용자가 의미론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의 흔적은 강결속되거나 R-결속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들, 즉 Chomsky(1986a)의 강결속(strong binding)과 Safir(1986)의 R-결속(R-binding)을 받아들여 Tanaka(1996)도 기생운용자가 자질 [-R]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과를 설명할 것이다⁵¹⁾. 다시 말해 공운용자인 Op가 이미 S-구조(즉, 최소주의의 틀에서 보면 외현부)에서 흔적 e를 남기고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운용자가 부가어 내에서 CP의 지정어로 이동하는 것은 외현적 이동으로 섬 효과를 보이지만, 부가어 내의 CP지정어 위치에서 주절 C에 부가되는 이동은 내현부에서 일어나는 자질이동으로 어떠한 범주 이동의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섬 제약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운용자의 [R]자질 점검을 통해 실제공백의 연쇄와 기생공백의 연쇄가 하나의 연쇄(wh_i , t_i , Op_i , e_i)를 이루게 될 때, LF층위에서 적법하게 해석되어 완전해석원리(FI)를 만족되어야 한다. LF 층위에서 적법한 해석을 하기위해서 Chomsky는 LF 층위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는 각각 연쇄로 해석된다고 가정하면서, 적법한 연쇄를 규정하였다. 또한 Chomsky (1993)는 적법한 연쇄들만이 LF층위에서 적법하게 해석되며 완전해석원리에 의해 허용되는 적법한 해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출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연쇄만으로 구성된 LF를 생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LF의 요소는 적법한 대상만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외의 잉여적인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표시의 경제성을 준수하게 된다. 표시의 경제성과 마찬가지로 도출의 경제성도 도출의 최소화로 실현된다. 생성절차가 생성하는 도출은 불필요한 절차가 모두 제거되어 단순화·최소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소노력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성 개념에서 볼 때 도출은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출비용의 최소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동작용의 적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필요에 의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그 이동작용은 짧으면 짧을수록 경제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동의 연쇄고리를 짧게 해야 한다는 도출의 경제 원리인 최소고리조건을 Chomsky & Lasnik (1993)은 제안한다. Chomsky & Lasnik (1993)이 규정한 적법한 연쇄에 의하면, 실제공백의 연쇄와 기생공백의 연쇄가 [R]자질점검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통합연쇄(wh_i , t_i , Op_i , e_i)는 연쇄고리들이 국부적으로 결속되기 때문에 최소고리조건을 만족한다. 이와 같이

51) a. what did you file t [_{PP} before [_{CP} Op [you read e]]]
b. This is the kind of food you must cook t [_{PP} before [_{CP} Op [you eat e]]].

형성된 연쇄는 적절한 연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쇄의 일관성조건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연쇄의 일관성조건을 지키는 적절한 연쇄원리로 기생공백을 설명하기 위해, wh-중간흔적의 자리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비논항 위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Nissenbaum (2000)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

Nissenbaum (2000)은 wh-이동의 중간흔적이 경유하는 vP 외곽지정어(즉, Nissenbaum의 정의로 보자면, vP에 부가하는 위치)자리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가 제시한 예문들을 살펴보면, wh-중간흔적의 자리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자리인데, 기생공백을 인허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비논항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에 있어서 wh-이동의 경우에, 중간 흔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중첩된 vP-부가어와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arson (1988a)은 중량명사구전이가 기생공백을 인허한다고 할지라도, NP는 기생공백 대신에 대명사를 갖는 부가어 혹은, 기생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비슷한 부가어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에, (기생공백이 없는) 똑같은 부가어가 부사구를 지나는 중량명사구전이현상을 겪는 NP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증거인 관계절 위치는 NP의 한 부분만이 이동된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중량명사구전이와 같은데, 부가어절을 지나서 이동된 wh-구에서 관계절의 위치는 기생공백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vP-부가어절의 왼쪽에 나타나는 위치된 관계절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공백 없이도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상된 NP가 vP-부가어절보다 더 높이 있다면, 기생공백은 의무적이지만, vP-부가어절보다 더 낮다면, 기생공백을 인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하기 위해서 부가어 위에 있어야 하고, 인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어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로 중첩된 vP 부가어는 두개의 부가어가 기생공백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개의 부가어 중에 단지 하나만 기생공백을 포함한다면, 비대칭적인 문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부가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문장은 문법적이지만, 가장 밖에만 있는 문장은 수용가능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의 패턴은 wh-이동의 중간 흔적이 두 개 중의 하나의 vP-부가어 위에 있거나, 혹은 vP-부가어 아래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vP-부가어 위에 혹은 아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중간흔적의 영역 속에 부가어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부가어라도 기생공백을 포함해야 한다, 반면에 중간흔적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가어는 기생공백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wh-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한다는 주장에 대한 3가지 종류의 증거는 Nissenbaum (2000)의 가설을 강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생공백이 있는 부가어와 그렇지 않은 부가어의 구조적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wh-이동의 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하게 된다면,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그 자리가 비논항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Nissenbaum (2000)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가어 내의 기생공백 뿐만 아니라, 주어 섬 내의 기생공백의 문법성에 대해서도 보편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wh-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한다고 보는 Nissenbaum (2000)의 주장과 [R]자질 점검을 주장하는 Tanaka (1996)와 김미준 (1998)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연쇄원리에 입각해 Chomsky (1995)의 문법체계 내에서 설명하겠다.

따라서 기생공백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최소주의 문법의 틀 내에서 이와 같은 연쇄조건과 자질점검이론을 통해 기생공백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생공백 구문의 공운용자가 지시적의 존성을 가지고 있어 [-R]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자질을 점검함으로써 기생공백을 설명한다. 기생공백이 [R]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Chomsky (1982)가 주장하였듯이 공운용자는 wh-요소와는 달리 의

미적으로 비어 있어 다른 요소에 의해 그것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운용자는 주술관계를 통하거나 선행사인 논항에 의해 해석되어야 완전해석 원리를 만족하기 때문이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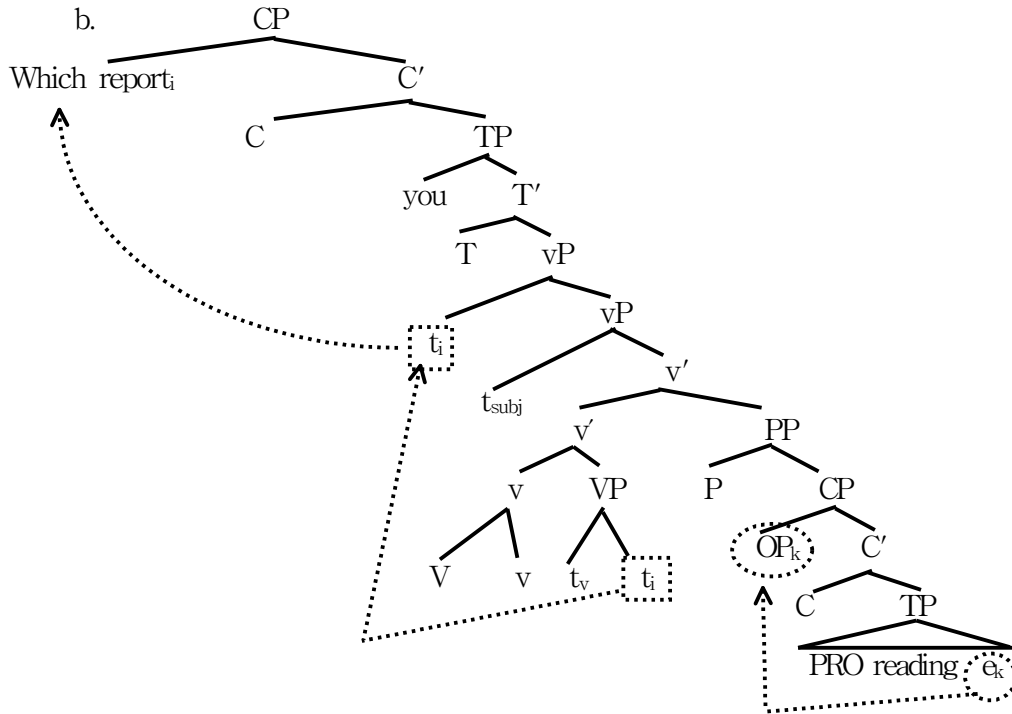
또한 [R]자질점검을 통해 기생공백연쇄(Op_i, e_i)와 실제공백연쇄(wh_i, t_i)가 하나의 연쇄(wh_i, t_i, Op_i, e_i)를 이루게 될 때, vP 의 외곽 지정어에 있는 wh -중간흔적이 비논항 위치이므로, 그 연쇄의 고리들이 국부적으로 각각 비논항 결속(A'-bound)된 연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Chomsky (1993)의 적법한 연쇄조건에 의해 비논항 결속된 연쇄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한 연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쇄의 일관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기생공백구문이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문법의 틀 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쇄조건과 자질점검이론을 활용하여 기생공백을 설명하고자 한다.

4.2.1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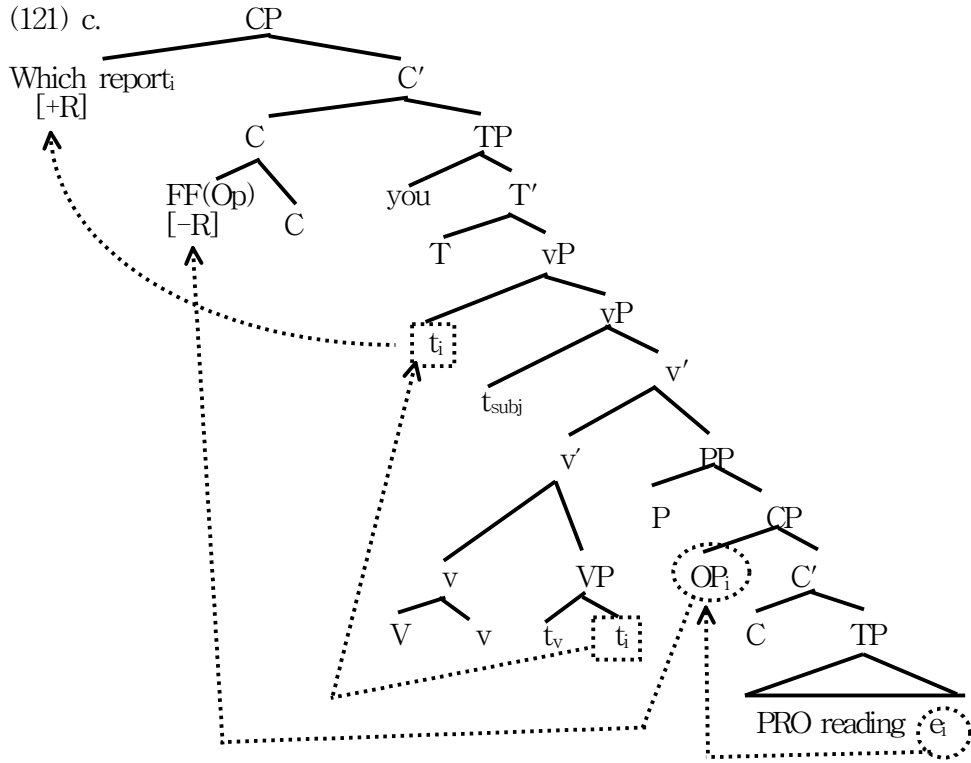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이론을 토대로, 반-성분통어 조건을 어기지 않는 다음 (121)를 보자.

(121) a. Which report_i did you file t_i without reading e_i

52) Aoun and Clark(1985)가 공운용자를 국부적인 결속 영역 내에서 wh -구에 의해 결속되는 비논항 대용사 (A'-anaphor)라고 규정한 것 또한 기생운용자가 대용사와 같이 [-R]자질을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121b)를 보면, 먼저 외현통사부에서 which report는 문자화(Spell-Out)이전에 격자 질과 $\emptyset$ -자질을 점검받기위해 v(Vb)에 유인되어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인상한다. 왜냐하면 Nissenbaum (2000)의 주장과 그가 제시한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wh-중간흔적은 비논항 자리인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기생공백을 인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C의 강자질[Q]에 의해 유인되어 비논항 위치인 그 자리에 wh-흔적인 t_i 를 남기면서, 최종적으로 [Spec, CP]로 이동한다. 그리고 공운용자가 부가어 내에 있는 CP의 지정어로 외현적 이동한다. 공운용자 Op의 외현적 이동의 근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생공백이 섬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섬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바로 하위인접 조건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위인접 조건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구문에 어떠한 S-구조의 이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내현통사부에서는 (121c)처럼 자질점검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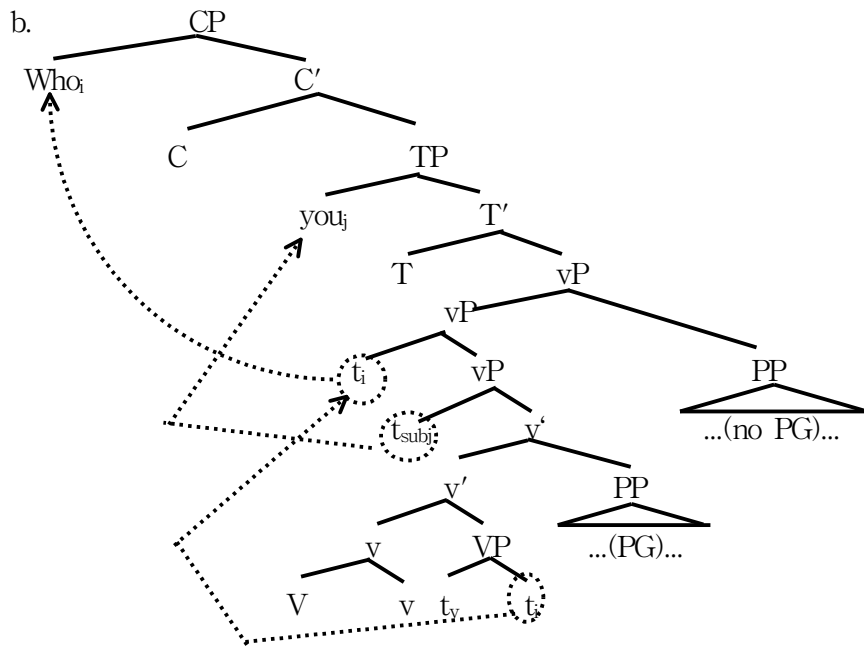
위 (121c)처럼 내현통사부에서 부가어 내의 CP 지정어 위치에서 FF(Op)는 주절 C의 [+Op]에 유인되어 C에 추가된다. 이와 같이 운용자의 형식자질 FF(Op)가 C-부가 위치로 이동한 동기는 기생공백의 허가자는 항상 의문사구, 관계운용자, 주제구화 등 운용자적 요소이기 때문에, 핵 C의 점검영역 안에서 운용자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 표적 C가 가진 [+Op]의 유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해석성 자질들은 유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자의 자질 [+R]에 의해 직접 유인될 수는 없다. 주절 CP의 지정어 위치가 외현적 통사부에서 실제 운용자인 DP로 채워졌을 때 C의 [+Op]는 탈락되지만 허가되어야 할 기생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C의 탈락된 [+Op]는 삭제되지 않는다. 탈락된 요소는 삭제되지 않는 이상 연산과정에 접근 가능하므로 탈락된 [+Op]는 그것의 점검영역으로 FF(Op)를 유인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해석성 자질[-R]이 점검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어 그 도출은 파산된다. 따라서 FF(OP)의 [-R]자질은 무임 승차자로서 which report에 있는 [+R]자질에 의해 지

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되어 자질 점검된다. 그런 다음 FF(OP)의 [-R]자질이 which report의 [+R]자질을 부여받게 된다. [R]자질점검의 결과, 실제공백연쇄(which report, t_i)와 기생공백연쇄(OP, e_i)는 연쇄고리가 각각 국부적으로 결속(local binding)되어 연쇄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연쇄 고리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해야 한다는 최소고리조건을 만족하면서 하나의 연쇄(which report, t_i , OP, e_i)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R]자질 점검을 하게 되면 동지표되고, 하나의 연쇄를 이루게 될 때,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에 남게 되는 which report의 중간흔적의 자리가 비논항 위치이기 때문에 그 연쇄의 고리들이 각각 비논항 결속된 연쇄로 이루어지므로 그 연쇄는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적법한 연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쇄의 일관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hich report와 e 를 동지시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144)의 예문은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비해석성 자질이 점검되었기 때문에 도출은 수렴하고, which report와 e 는 동지시(coreference)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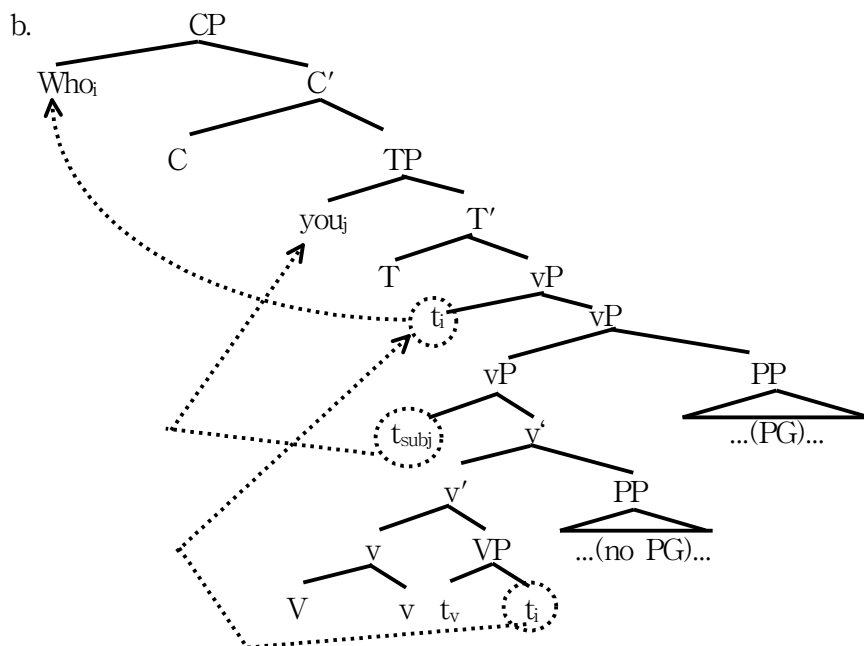
또한, 기생공백이 있는 부가어와 그렇지 않은 부가어의 구조적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문 (122)과 (123)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 논문에서 wh-이동의 중간 흔적이 vP에 부가하는 위치에서 기생공백을 인허한다고 설명하는 Nissenbaum (2000)의 주장은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에 국한된 설명이기 때문에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 뿐만 아니라 주어내재 기생공백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을 하기위해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기생공백이 자질점검을 받으면서 연쇄를 이룬다는 연쇄이론으로 기생공백을 설명하기 위해 vP의 외곽 지정어 자리⁵³⁾가 비논항 위치라는 주장만은 받아들인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wh-중간흔적이 있는 vP에 부가하는 위치가 기생공백을 인허한다는 Nissenbaum (2000)의 주장을 보면 그 자리는 비논항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생공백의 자리에 대명사가 나온다면, 대명사가 비논항 자리에 있는 t_i 에 의해서 비논항 결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대명사가 변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예문 (122)과 (123)를 살펴보자.

53) Nissenbaum (2000)에 의하면 이 자리는 vP에 부가하는 자리를 말한다.

(122) a. Who_i did you praise _i to the sky [after criticizing _i][in order to surprise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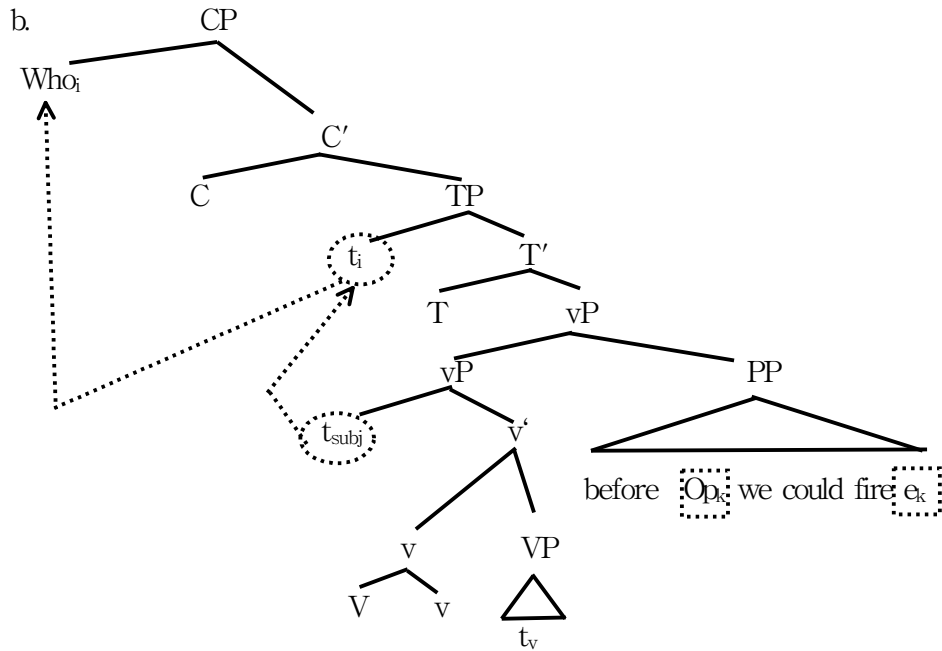
(123) a. *Who_i did you praise _i to the sky [after criticizing him][in order to surprise _i]?



(122)은 wh-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하기 위해서, 기생공백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한다. 즉,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비논항 위치에 오게 되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123)도 wh-이동의 중간흔적이 기생공백을 인허하기 위해서, 기생공백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생공백이 없는 부가어(PP)를 결속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다시 말해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즉, 비논항 위치)에 있는 wh-이동의 중간흔적 t_i 에 의해서 대명사가 비논항 결속이 되면, 대명사가 변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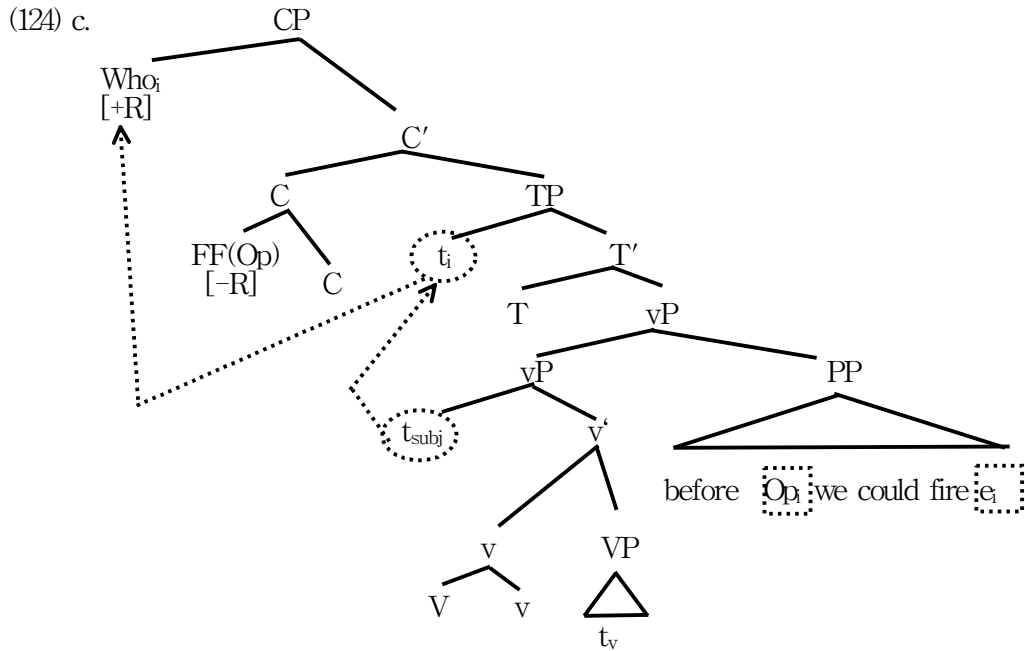
그러면 반-성분통어 조건을 어기는 예문 (124)를 보자.

(124) a. *Who_i t_i resigned before we could fire e_i



(124b)에서 Who는 주절 vP의 주어로 생성되어 T의 강자질[D]에 의해 유인되어 [Spec, TP]로 인상하여 격자질과 $\emptyset$ -자질이 점검된다. 그리고 나서 who는 C의 강자질[Q]에 의해 유인되어 [Spec, CP]로 인상한다. 그리고 공운용자가 부가어내에

있는 C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모두 외현통사부에서 일어난다. 그런 다음 내현통사부에서는 아래 (124c)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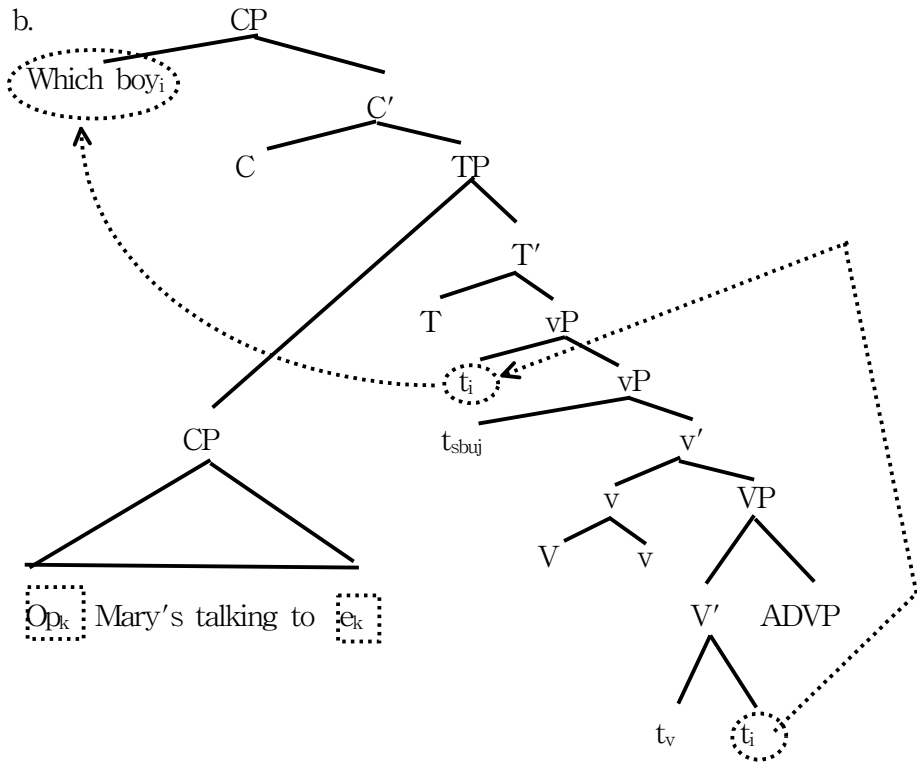


위 (124c)을 보면, 내현통사부에서 FF(Op)는 주절 C의 [+Op]에 의해 유인되어 C에 부가된다. C의 비해석성 자질[+Op]는 삭제된다. 여기서 FF(Op)에 있는 [-R]이 who의 [+R]과 점검관계에 있게 된다. 결국 [-R]은 해석성 자질 [+R]이 되어 who와 e 는 동일 지시로 해석하도록 하게 된다. 그러나 [R]자질 점검을 통해서 who와 e 가 하나의 연쇄(who_i , t_i , Op, e_i)를 이루지만, TP의 spec자리가 논항 위치(A-position)이므로 논항결속이 된다. 따라서 연쇄의 일관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연쇄는 문법적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R]자질을 점검받았기 때문에 도출이 수렴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의미있는 해석을 만들어 내지 못하여 who와 Op를 동일 지시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반-성분통어 조건을 어기는 (124a)의 비수용성이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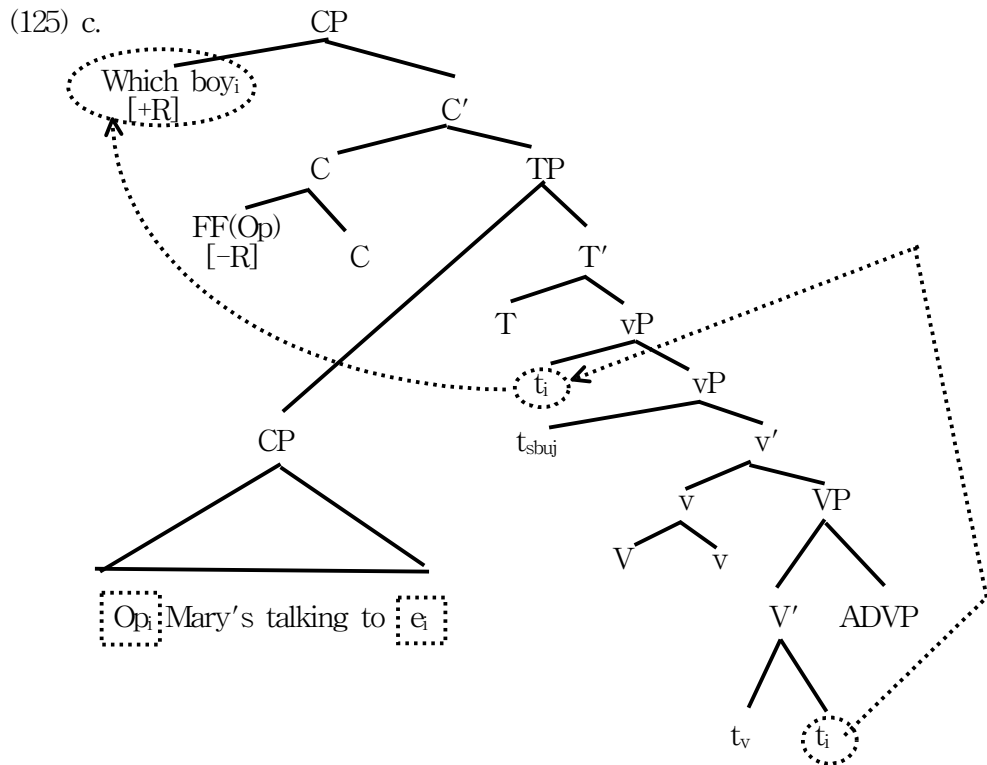
4.2.2. 주어 내재 기생공백

주어 내재 기생공백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다음 (125) 예문을 보자.

(125) a. Which boy_i did [Mary's talking to e_k] bother t_i most



(125b)를 보면, 먼저 외현통사부에서 which boy는 문자화이전에 격자질과 φ -자질을 점검받기위해 비논항 위치인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C의 강자질[Q]에 의해 유인되어 vP의 외곽 지정어 자리에 wh-흔적을 남기면서, 최종적으로 [Spec, CP]로 이동한다. 그리고 공운용자가 주어 내에 있는 CP의 지정어로 외현적 이동한다. 그런 다음 내현통사부에서는 (125c)처럼 자질점검이 일어난다. (125c)를 보자.



위 (125c)를 보면, 내현통사부에서 주어 내의 CP 지정어 위치에서 FF(Op)는 C의 [+Op]에 유인되어 C에 부가된다. 그런 후, FF(OP)의 [-R]자질은 무임 승차자로서 which boy에 있는 [+R]자질이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서 자질 점검되어 FF(OP)의 [-R]자질이 which boy의 [+R]자질을 부여받게 된다. 이 점검의 결과, 실제공백의 연쇄와 기생공백의 연쇄는 하나의 통합연쇄(which boy_i, OP, e_i)를 이루게 된다. 이때, 그 연쇄는 연쇄의 일관성조건을 만족시킨 비논항 연쇄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따라서 which boy와 e를 동지시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125)의 예문은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비해석성 자질이 점검되었기 때문에 도출은 수렴하고, which boy와 e는 동지시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Chomsky (1986b)의 용어에 의하면, 실제 공백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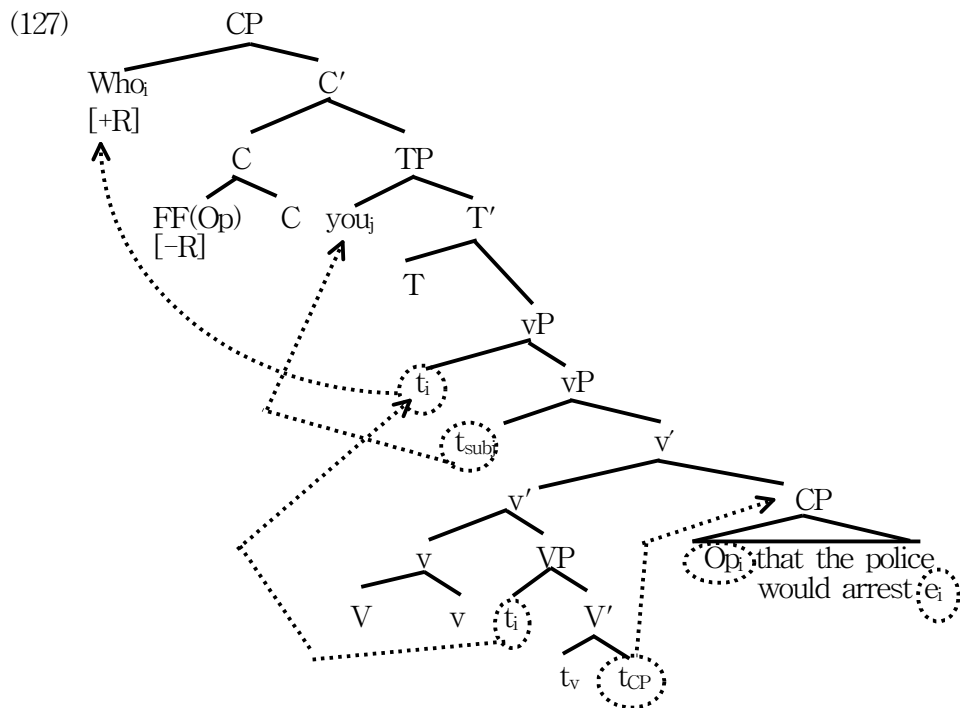
4.2.3 보충어 내재 기생공백

(126) a. Who_i did you warn t_i [that the police would arrest e_j]

b. *Who_i did you warn t_i [the police would arrest e_j]

동사 warn의 보충어 CP절 내에 기생공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충어 절인 CP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Chomsky (1986b)는 (126a)의 보충어 CP가 일반적인 하위 범주화된 보충어가 위치하는 동사구 내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CP는 warn의 자매(sister)로서 지배되고, 그 결과 t는 e를 성분통어한다. 따라서 Chomsky (1986b)의 이론은 t가 e를 성분통어하기 때문에 반-성분통어조건으로 기생공백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afir (1987)와 Browning (1987a)은 보충어 CP가 외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Safir는 S-daughter위치에 Browning은 동사구에 부가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Safir와 Browning은 둘 다 외치의 근거를 공 보문자는 그것이 고유 지배될 경우에만 허가된다고 주장한 Stowell (1981)과 Kayne (1981)의 공 보문자의 허가조건에서 찾고 있다. 왜냐하면 화자들이 공 보문자가 있는 (126b)를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한 것은 CP 절이 고유지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사에 의해 고유 지배되지 않은 동사구 부가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즉 that은 그 Comp자리가 고유지배 될 때에만 생략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that이 생략된 (126b)가 (126a)보다 덜 문법적이다. 따라서 (126)의 CP는 지배되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S-daughter위치에 있는 요소는 고유 지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므로 CP는 S-daughter위치에 외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26)의 보충어 CP가 외치되어 t의 성분통어 영역 밖에 있다면 t는 e를 성분통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towell (1981)과 Browning (1987a)의 주장을 받아들여 (126a)의 구조는 다음 (127)처럼 나타낼 수 있다.



(127)을 보면, 먼저 외현통사부에서 *who*는 격자질과 φ -자질을 점검받기 위해 비논항 위치인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후,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면서, C의 강자질 [Q]에 의해 유인되어 [Spec, CP]로 이동한다. 그리고 보충어 CP가 동사구에 부가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는 Browning (1987a)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충어 CP를 동사구에 부가되는 위치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공운용자가 부가어 내에 있는 CP의 지정어로 외현적 이동한다.

또한 내현통사부에서는 보충어 내에 있는 CP의 지정어 위치에서 FF(Op)는 주절 C의 [+Op]에 유인되어 C에 부가된다. 그런 후, FF(OP)의 [-R]자질은 *who*에 있는 [+R]자질에 의해 지정어-핵 일치로 자질 점검되어 FF(OP)의 [-R]자질이 *who*의 [+R]자질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R]자질점검의 결과, 실제공백의 연쇄와 기생공백의 연

쇄는 하나의 연쇄(who, t_i, OP, e)를 이루게 된다. 이때, vP의 외곽 지정어에 남게 되는 who의 중간흔적의 자리가 비논항 위치이기 때문에 그 연쇄의 고리가 국부적으로 각각 비논항 결속되기 때문에 연쇄의 일관성을 만족하여 합법적인 연쇄가 된다. 따라서 비해석성 자질이 점검되었기 때문에 도출은 수렴하며, who와 e를 동지시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4.3 남아있는 문제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량명사구전이 구문이 기생공백을 인허한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⁵⁴). 그러나 본 논문의 틀로는 중량명사구전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중량명사구전이 구문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128) a. John filed _i [without reading _i] a recent article about Amazonian frogs_i
 b. *John filed _i [without reading it_i] a recent article about Amazonian frogs_i
- (129) a. I hired t_i [without interviewing e_i] Mary'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_i
 b. *I hired t_i [without interviewing him_i] Mary'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_i
- (130) a. John filed _i in the top drawer a recent article about Amazonian frogs_i
 [without reading it/* _i]
 b. I hired _i with no hesitation Mary'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_i
 [without interviewing him/* _i]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본 논문의 틀은 외현통사부에서 wh-어구는 격자질과 φ -자질을 점검받기위해 비논항 위치인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후, 그 자리에

54) Engdahl (1983), Chomsky (1982), Larson (1988a), Nissenbaum (2000)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wh-흔적을 남기면서, C의 강자질[Q]에 의해 유인되어 [Spec, CP]로 이동한다. 그리고 공운용자가 부가어/주어 내에 있는 CP의 지정어로 외현적 이동한다. 그런 다음 내현통사부에서는 부가어/주어 내의 CP 지정어 위치에서 FF(Op)는 주절 C의 [+Op]에 유인되어 C에 추가된다. 그런 후, FF(OP)의 [-R]자질은 무임 승차자로서 wh-어구에 있는 [+R]자질에 의해 지정어-핵 일치되어 자질 점검된 후, FF(OP)의 [-R]자질이 wh-어구의 [+R]자질을 부여받게 된다. 이 점검의 결과, 실제공백의 연쇄와 기생공백의 연쇄가 하나의 연쇄를 이루게 될 때, 그 연쇄의 고리가 국부적으로 각각 비논항 결속된 연쇄라면, 연쇄의 일관성을 만족하여 wh-어구와 e를 동지시 해석하는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wh-어구와 e는 동지시로 해석되어 완전해석원리를 만족하게 되며, 비해석성 자질이 점검되었기 때문에 도출은 수렴한다. 그러나 중량명사구전이는 격자질과 φ -자질을 점검받기위해 이동한 명사구가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만 이동을 하며, 더 이상 [Spec, CP]로 이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운용자의 FF(Op)의 자질이 C의 [+Op]에 의해 유인되지 못하게 되어, [-R]자질이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본 논문의 틀로는 중량명사구전이 구문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중량 명사구 전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본 논문의 단점을 차후의 연구대상으로 남겨둘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생공백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이 지배결속이론과 최소주의 이론의 틀 내에서 각각 어떻게 기생공백구문을 분석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장에서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이론을 토대로 연쇄조건과 자질점검이론으로 기생공백을 설명하였다.

기생공백 구문에 관한 영향력있는 연구가 시작된 것은 Engdahl (1983)부터 시작되었지만, 기생공백 구문의 현상을 설명할 만한 원리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구문의 용인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기생공백 구문이 가지는 특징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데에는 공헌을 하였다.

비이동식 관점에서 Chomsky (1982)는 지배결속이론의 독립적인 원리로 기생공백 구문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성공했다. 기생공백이 S-구조에서 변항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비논항 이동의 흔적인 실제공백에게 성분통어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제약은 결속이론 원리 (C)와 의미역 기준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생공백의 정체를 D-구조에서 기저생성된 공범주로 밝히고 S-구조에서는 기능적 결정방법에 따라 변항이 된다고 정의함으로써 하위인접 효과를 보이는 많은 예문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남겨놓았다.

하위인접효과를 이동의 결과가 아닌 구조표시에 가해지는 제약으로 분석하려 하였던 Kayne (1983)은 기본 지배구조가 형성되면 아래에서 위로 g-투사해 나가는 공범주 원리를 제시하고 연결성에 의해 기생공백은 허가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생공백 구문에 있어서, 실제공백의 g-투사 집합과 기생공백의 g-투사 집합이 만나서 부분 수형도를 이루어 동일한 선행사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결속된다. 따라서 기생공백의 g-투사가 실제공백의 g-투사에 의존하여 허가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성 조건은 공범주 원리와 하위인접 조건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서 기저 생성된 공범주와 이동 후의 흔적인 공범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기생공백 구문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현상은 잘 설명하였으나 복합명사구 구문과 wh-섬 구문에 나타나는 기생공백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Chomsky (1986)는 기생공백의 섬효과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공운용소의 이동을 가정하여 기생공백을 변항으로 봄으로써 섬효과를 설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실제공백의 연쇄와 기생공백의 연쇄가 합쳐진 연쇄합성을 이루며 연쇄합성은 영-하위인접조건과 반성분통어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부가어 내재 기생공백의 경우 영-하위인접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PP가 VP 내부에 있어야 하고 반-성분통어 조건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PP가 VP 내부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상충적인 문제에 부딪친다. 더구나 영-하위인접 조건은 PP부가를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는데, 필요한 만큼 PP부가를 확장해 가는 방법에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주어 NP 내에 기생공백이 포함된 경우 NP는 논항인지라 부가장치가 불가능하므로 장벽이 되어 언제나 영-하위인접 조건을 어기게 되나, PP부와 VP의 부가는 가능하여 영-하위인접 조건을 준수하게 되므로 비문법적인 문장들을 잘못 판단하게 하며, PP부가로 인하여 PP가 장벽성을 잃게 되면 부가어 조건으로 분석할 수 있었던 비문법적인 문장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Frampton (1990)은 Wh-이동에서 최대투사들의 부착에 관한 제약들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Chomsky (1986)의 장벽이론에 대한 수정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약들은 한편으로는 IP에 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완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착에 대한 허가조건으로서 규범 핵 지배조건을 부가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제약을 만들었다. 이는 기생공백 현상의 향상된 설명과 that-흔적 효과의 간결화 된 설명을 제시한다.

Frampton (1990)은 wh-이동에서 최대투사들의 부착에 관한 제약들은 IP에 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완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착에 대한 허가조건으로서 규범 핵 지배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제약을 만들었다. Frampton (1990)의 이론을 보면, 같은 운용자를 머리로 하는 두 개의 wh-연쇄가 있지만, 각

각의 연쇄는 국부결속을 만족한다. 그러나 일차연쇄와 기생연쇄와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일차연쇄는 이동의 흔적이며, 기생연쇄는 S-구조에서 연쇄형성의 근거로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IP에 부착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VP속에 있는 일차연쇄와 기생연쇄사이의 연결 장소가 된다. 그리고 기생연쇄는 1-하위인접을 만족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생공백을 설명했다.

Frampton (1990)의 분석은 관계절 내에서 기생공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생공백의 가능성에 대한 주어 NP의 한정사의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NP에서 적출의 가능성에 대한 한정사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화란어에서 이와 일치하는 예문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위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같은 운용자를 머리로 하는 두 개의 wh-연쇄가 있지만, 각각의 연쇄는 국부결속을 만족하며, 일차연쇄와 기생연쇄사이의 연결 장소로 IP의 부착을 설정했던 Frampton (1990)의 개념은 IP의 부착으로 실제 연쇄에는 영-하위인접조건을, 기생연쇄에는 1-하위조건을 따른다. 이는 기생공백 인허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편 문법에 입각해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Nissenbaum (2000)은 Chomsky (1986)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기생공백을 포함하는 섬들은 공운용자구조이며, 기생공백이 발견되는 부사어절의 종류들은 의미적 결과로 인해 완전한 vP에 부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생공백이 그것을 포함하는 섬 위에 영역을 가진 음성적인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된다는 것은 그 섬이 하나의 절이기보다는 일항 술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공운용자구조는 vP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Nissenbaum (2000)은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적 합성은 vP의 외곽지정어(여기서는 Chomsky (1995)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vP에 부가하는 위치를 말한다) 위치로 DP의 인상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vP의

외곽지정어 위치에 있는 wh-이동의 중간흔적과, 그것 바로아래에 있는 vP의 부가어(null operator)는 기생공백 인허를 위한 것이다. 즉, wh-이동의 중간흔적이 경유하는 vP의 외곽지정어(즉, vP에 부가하는 위치)자리가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Nissenbaum의 주장은 부가어 내의 기생공백을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던 중량명사구전이 구문까지도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부가어 내의 기생공백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주어 내재 기생공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Chomsky (1993, 1995)가 경제성 원리를 근거로 하여 최소주의 이론을 제안하면서 구문을 분석하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95)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문법의 핵심인 자질점검을 토대로 기생공백 구문의 공운용자가 지시적 의존성이 있어 [-R]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R]자질을 점검함으로써 기생공백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R]자질 점검을 통해 실제공백의 연쇄와 기생공백의 연쇄가 하나의 연쇄(wh_i, t_i, Op_i, e_i)를 이루게 될 때, 연쇄의 고리가 국부적으로 각각 비논항 결속되어 연쇄의 일관성을 지킨다면, 적절한 연쇄가 되며, wh-어구와 기생공백을 동지시할 수 있으므로, 그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쇄 고리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해야 한다는 최소고리조건을 만족하면서 하나의 통합 연쇄(wh_i, t_i, Op_i, e_i)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R]자질 점검을 하게 되면 동지표되고, 하나의 연쇄를 이루게 될 때,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에 남게 되는 wh-어구의 중간흔적의 자리가 비논항 위치이기 때문에 그 연쇄의 고리들이 각각 비논항 결속된 연쇄로 이루어지므로 그 연쇄는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연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쇄의 일관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h-어구와 기생공백을 동지시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게 된다. 또한, Chomsky (1986b)의 공운용자 이동분석을 채택하여 기생공백 구문에 나타나는 섬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자질 점검으로 기생공백의

의존성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생영역 내에서는 외현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섬효과를 보이고 밖에서는 내현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섬 제약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95)의 문법체계를 바탕으로 연쇄조건과 자질점검 이론으로 기생공백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량명사구전이는 이동한 명사구가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만 외현적 이동을 하며, 더 이상 [Spec, CP]로 이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운용자의 FF(Op)의 자질이 주절 C의 [+Op]에 의해 유인되지 못하게 되며, [-R]자질이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본 논문의 틀로는 중량명사구전이 구문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중량 명사구 전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본 논문의 단점을 차후의 연구대상으로 남겨둘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준. 1998. 「영어의 기생공백구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 1996. 「대용화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Aoun, J. and R. Clark. 1985. On non-overt operators. In *Southern California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0: 17-36.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 Authier, J. M. 1989. Two types of empty operator. *Linguistic Inquiry* 20: 117-125.
- Authier, J. M. 1991. V-governed expletives, case theory, and the projection Principle. *Linguistic Inquiry* 22: 721-740.
- Bennis, H and T. Hoekstra. 1984. Gaps and parasitic gaps. *The Linguistic Review* 4: 29-87.
- Brody, Michael. 1984. On contextual definitions and the role of chains. *Linguistic Inquiry* 15: 355-380.
- Brody, Michael. 1992/93. *Lexico-logical form: A radical minimalist theory*. Ms., University College London.
- Brody, Michael. 1995. *Lexico-logical form: A radically minimalist theory*. MIT Press, Cambridge, Mass.
- Browning, Marguerite A. 1987a. *Null operator construc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Browning, Marguerite A. 1987b. *Null operators and their antecedents*. In proceedings of NELS 17, 59-78.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86a.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Praeger.
- Chomsky, Noam. 1986b.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ed. Kenneth Hale and Samuel Jay Keyser, 1–52.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inque, G. 1990. *Types of A'-dependencies*. MIT Press, Cambridge, Mass.
- Contreras, Heles. 1984. A note on parasitic gap. *Linguistic Inquiry* 15: 698–701.
- Contreras, Heles. 1993. On null operator structure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11: 1–30.
- Culicover, Peter W. 1991. Topicalization, inversion, and complementizers in English. *Fifth Symposium on Comparative Grammar*, University of Utrecht, Utrecht.
- Engdahl, Elisabet. 1983. Parasitic gaps. *Linguistics and Philosophy* 6: 5–34.
- Engdahl, Elisabet. 1985. Parasitic gaps, resumptive pronouns, and subject extractions. *Linguistics* 23: 3–44.
- Frampton, J. 1990. Parasitic gaps and the theory of wh-chains. *Linguistic Inquiry* 21: 49–77.
- Hoekstra, T. 1988. Parasitic gaps: *A unified or composed chain*, Ms., University of Leiden.
- Heageman, Liliane. 1984. Parasitic gaps and adverbial clauses. *Journal of Linguistics* 20: 229–232.
- Heageman, Liliane.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Oxford: Blackwell.
- Hornstein, Norbert. 1995. *Logical Form. GB to Minimalism*. Blackwell, Oxford.
- Hornstein, Norbert. 2001. *Move! A minimalist theory of construal*. Oxford, Blackwell.
- Jones, C. 1987. Empty operators and parasitic gaps. *The Proceedings of NELS* 18: 254–270.
- Kayne, Richard S. 1981. ECP Extensions. *Linguistic Inquiry* 12: 93–133.

- Kayne, Richard S. 1983. Connectedness. *Linguistic Inquiry* 14: 223-250.
- Kennedy, c. 1997. Vp-deletion and nonparasitic gaps. *Linguistic Inquiry* 28: 697-707.
- Kim, S. and J. Lyle. 1996. Parasitic gaps, multiple questions, and VP ellipsis. *The Proceedings of WCCFL* 14: 247-301.
- Koopman, Hilda. and Dominique Sportiche. 1982. Variables and the bijection principle. *The Linguistic Review* 2: 139-160.
- Lasnik, H. and M.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nguistic Inquiry* 15: 235-289.
- Lasnik, H. 1986. *Topics in Government-Binding Theory*.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Lasnik, H. and M. Saito. 1992. *Move α* . MIT Press, Cambridge, Mass.
- Lasnik, H. and T. Stowell. 1991. Weakest crossover. *Linguistic Inquiry* 22: 687-720.
- Longobardi, Giuseppe. 1985a. Connectedness and island constraints. In *Grammatical representation*, eds. Jacqueline Gueron, Hans-Georg Obenauer, and Jean-Yves Pollocks, 169-185. Dordrecht: Foris.
- Longobardi, Giuseppe. 1985b. Connectedness, scop, and c-command. *Linguistic Inquiry* 16: 163-192.
- Manzini, M. Rita. 1992. Parasitic gaps and locality theory: some results.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 55-73.
- Manzini, M. Rita. 1994. Locality, minimalism, and parasitic gaps. *Linguistic Inquiry* 25: 481-508.
- Munn, Alan. 1992. A null analysis of across-the-board gaps. *The Linguistic Review* 9: 1-26.
- Nissenbaum, John. 2000. Covert movement and parasitic Gaps. MIT. *The Proceedings of NELS* 30: 541-555.
- Nunes, J. 1995. *The copy theory of movement and linearization of chains in the minimalist program*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Postal, Paul M. 1993. Parasitic gaps and the across-the-board phenomenon. *Linguistic Inquiry* 24: 735–754.
- Postal, Paul M. 1994. Parasitic and pseudo-parasitic gaps. *Linguistic Inquiry* 25: 63–117.
- Reinhart, T.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Doctoral Dissertation, MIT.
- Rizzi, Luigi. 1986. Null objects in Italian and the theory of *pro*. *Linguistic Inquiry* 17: 501–558.
- Rizzi, Luigi.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Safir, K. 1984. Multiple variable binding. *Linguistic Inquiry* 15: 603–638.
- Safir, K. 1986. Relative clauses in a theory of the binding and levels. *Linguistic Inquiry* 17: 663–689.
- Safir, K. 1987. The Anti-C-command condition on parasitic gaps. *Linguistic Inquiry* 18: 678–683.
- Stowell, Tim.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Stowell, Tim. 1995. Licensing conditions on null operators. In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4, 314–326. Stanford Linguistics Associ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
- Tanaka, H. 1996. A minimalist analysis of parasitic gap constructions. Osaka University Papers in *English Linguistics* 3: 77–117.
- Taraldsen, Knut Tarald. 1981.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a class of marked extractions. In Adriana Belletti, Luciana Brandi, and Luigi Rizzi eds.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475–516.
- Williams, Edwin. 1980. Prediction. *Linguistic Inquiry* 11: 203–238.
- Williams, Edwin. 1990. The ATB theory of parasitic gaps. *The Linguistic Review* 6: 265–279.

ABSTRACT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Parasitic Gap Constructions in English

Ki-jung Jung

Major in English Language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nd explain the parasitic gap(PG)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the licensing conditions. Until now we have investigated proposals on PG constructions suggested by several scholars in Generative Grammar.

PG relies on the existence of another gap, the real gap, in the same sentence. The two gaps are A'-bound by a real operator, wh-phrase. PG appears within subjects, adjuncts, and complements.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is classified into two large approaches: One is the non-movement approach, proposed by Engdahl (1983), Chomsky (1982) and Kayne (1983), where PG is defined as a base-generated empty element at D-structure. The other is the movement approach proposed by Chomsky (1986) and Browning (1987) assuming that PG is the trace left by the movement of null operator.

A few scholars including Mazini (1994), Hornstein (1995) study PG constructions based on the economy principle in the early Minimalist Program. The studies on PG structures are, however, not prosperous within the Minimalist program by Chomsky (1995). So I research into the PG constructions making use of chain condition and feature checking theory on the basis of the Minimalist Program by Chomsky (1995).

Since null operator has [R] feature due to their referential dependency, wh-phrase co-indexes null operator by checking that feature. As a result, chain link of real gap(wh_i , t_i) and that of PG(Op_i , e_i) make a unified chain(wh_i , t_i , Op_i , e_i), which is a legitimate chain by keeping Chain Uniformity Condition and Minimal Link Condition. To make a legitimate chain, intermediate trace of wh-phrase should be A'-position, which does not violate Chain Uniformity Condi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wh-phrase to co-reference PG, and a sentence with PG are grammatical. A sentence with PG, however, violates Chain Uniformity Condition and will be ungrammatical if wh-intermediate trace does not exist in A'-position.

Thus, applying feature checking theory and chain condition within Minimalist Program, I can analyze the PG constructions in English as Universal grammar.